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6 월호



“월간충현 지령 100호”

=문서선교의 새로운 장을 다시 연다=

충현교회의 대변지 「월간충현」이 지령 1백호를 쌓았다. 지난 72년 4월30일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 오늘의 「월간충현」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과히 짧지않은 연륜 속에서 「월간충현」은 매월 발행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초창기 때의 미미한 상황에서 호수를 거듭함에 따라 충현교회 교우 뿐 아니라 충현밖의 믿음의 동지들에게까지 복음과 진리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다.

창간 이후 당회장 김창인목사를 위시한 당회원, 그리고 1만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이런 헌금은 물론, 전국교회 교우, 군부대와 해외이민 교우들까지 적극적인 호응과 애독으로 「월간충현」은 충현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의 이정표를 그려 놓았다고 본다.

물론 잡지를 만드는 실무진의 노고는 말할나위 없을 뿐 아니라 출판국장 이하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이번 기회에 경하하고 싶다. 아주 보잘것없이 출발했던 우리의 기관지가 『처음엔 미미했으나, 후엔 창대』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애독해 준 독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이제 100호를 발행하면서 「월간충현」 발전에 따른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인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매체가 되어야한다.

무조건 쓴다고 해서 다 글이 되는것이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올바른 사상과 글재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만 문서선교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을 향락적으로 기쁘게 하는 흥미 위주의 저속한 내용의 글에서 탈피하는데 진력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확립해야 한다. 공의(公義)는 사사로움이 개재된다든가 특정인의 호도행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하고 진리와 지식을 혼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수호, 사랑의 실천, 폭넓은 교제, 대화의 풍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인쇄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복음확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말로 전하는 복음전파의 시대에서 각종 미디어를 통한 행동반경이 넓어져 가고 있다. 미디어 홍수시대에 우리의 선교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전파미디어나 프린트미디어의 활용만이 효과적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파급동도가 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자를 통한 복음선교는 영구성을 병행하면서 읽는자마다 복음의 접착점을 얻게되고 생명체로의 구원 과정에 동반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간충현」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복음확산 작업에 열의를 가져야 하며, 문서선교 개발로 새로워지는 잡지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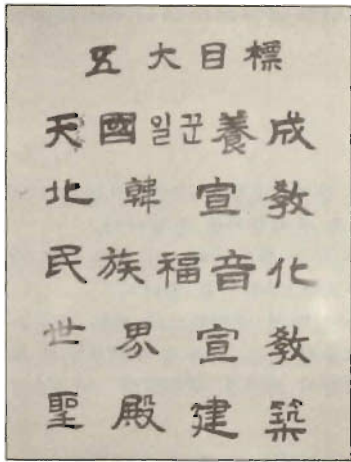
3. 복음종합지로 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우리의 「충현」에서 한국의 「충현」으로, 한국의 「충현」에서 세계의 「충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매물 형태의 기관지 형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종합 복음잡지로 육성해야 한다. 판형의 변모와쇄신은 말할 것도 없고, 「월간충현」을 문공부에 정식 신앙잡지로 등록시켜 충현식구 이외의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순수한 보수신앙 파수, 개혁주의 신앙의 생활화, 민족과 세계교회를 위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키 위해 「월간충현」은 내용의 혁신, 새로운 집필진 확보, 교인 모두가 읽고 감동할 수 있는 격조높은 종합 신앙잡지로서 성장토록 힘써야 한다.

「월간충현」을 받아 읽는이마다 사이비신앙에 현혹되지 않으며, 신신학 자유주의 급진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확립한 신앙생활에 젖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월간충현」은 새로 창간호를 만드는 긴장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정성을 모우며, 지혜를 최대한 써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새생명 예수」의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힘찬 나래를 펴고 싶다.



중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0권 제6호 · 통권100호

1982년 6월호 차례

권두언 / 월간중현 지령 100호	손경수 · 2
이달의 말씀 / 아브라함의 출발	김창인 · 4

지령 100호 기념사

·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조현명 · 6
· 세계인의 월간 중현이 되기 바란다	최석주 · 7

지령 100호 기념특집 / 현대교회와 문서선교

· 문서선교의 방향	박종구 · 8
· 활자 미디어의 위력	손경수 · 10
· 문서선교의 필요성	유용구 · 15
· 한국 문서선교의 현황	조선근 · 19
· 개혁주의 교회와 문서운동	채기은 · 22
· 문서선교와 목회	김명혁 · 12

월간 중현

The Monthly Chung Hyeon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⑤ 이적관]

· 사도적 케리그마	박운선 · 25
------------	----------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⑥]

·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김창인 · 28
------------------------	----------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⑬]

· 칼빈주의 국가관	김하진 · 29
------------	----------

[신학 논단]

· 복음과 선교(上)	조영길 · 31
-------------	----------

[특별게재]

·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김차생 · 33
------------------	----------

□ 고 홍종만 목사를 애도함	홍치모 · 36
-----------------	----------

6월의시 / 바울의 자화상	김연이 · 39
----------------	----------

신앙수상 / 어떤 목사사모의 고백	윤두한 · 38
--------------------	----------

책 소개 / 새벽설교365일	중현터 · 14
-----------------	----------

선교사 · 선교지소식	40	교계소식	42
-------------	----	------	----

이달의 교우동정	43	교회소식	44
----------	----	------	----

6월의 행사	46	편집후기	46
--------	----	------	----



표지설명 / 이달은 월간 중현이 지령 100호를 맞이하는 뜻깊은 달이다. 1974년 4월30일 창간호를 낸 이후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그 사명을 다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중현지는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표지는 월간 중현의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지나간 중현지의 얼굴들을 모아 보았다. 우하단이 창간호이며 그 위에 전호의 모습도 보인다.

□ 이달의 말씀

아브라함의 출발

〈창 11 : 27 - 12 : 3〉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민음의 조상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은 반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나 올바르게 시작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 아브라함이 어떠한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출발했습니까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사 51 : 1)

이사야 선지는 아브라함이 우묵한 웅덩이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까?

본토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까. 본토라는 구덩이는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이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또한 「친척」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까. 친척이라는 말은 씨족, 당파사상이라는 웅덩이에 빠져서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집」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 사람입니다.

인간은 미신에 빠지고 당파사상에 포로가 되고 불의한 사업에 욕심으로 양심의 등불이 꺼져 불의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입니다.

2. 아브라함의 출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머리가 좋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에 의하여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전진하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 속에 다짐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① 하나님만 섬기려고 떠났습니다.

②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떠났습니다.

③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지하는 곳으로 가면 네게 다섯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너를 보호할 터이다.

· 내가 너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 주마.

· 많은 자손의 복을 주마.

· 승리자로 만들어 주마.

· 내가 가서 사는 지방에까지 복을 받도록 해 주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구덩이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 : 1)

3. 아브라함의 전진하는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순종에는 다섯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①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러러 보면서 따라가는 겸손한 순종입니다.
땅 위의 대통령도 높고 사장도 높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으신 분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② 담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있을지어다」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변동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③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종입니다.

④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이라는 말은 욕심이 섞이지 않은 순종입니다. 욕심이 섞이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없는 깨끗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⑤ 머뭇거림이 없는 부지런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4. 순종하여 출발한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 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 ②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 ③ 참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 ④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 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해서 복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내 백성을 놓아 주시오”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의 시작은 지렁이 같이 미약했는데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져서 태산같은 애굽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을 바로 합시다. 그리고 출발할 때 기도하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복을 받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이같은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이 민족 장래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김 창 인 목사

(본교회당회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조 현 명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장)

우리 충현지가 이 세상에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린지도 10여성이 흘러 이번에 지령(誌齡) 백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줄 알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월간충현이 오늘날 까지 걸어오면서 다난(多難)했던 장기간 얼마나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꾸준히 그 명맥(命脈)이 이어져 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충현교회의 얼굴로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보수 진영의 자랑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령 100호 기념호를 내면서 눈을 돌려 충현지 창간 당시를 회고해 보면 정말로 감회가 깊습니다. 1972년 창간 당시에 내걸었던 편집지침 중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삶의 목표로 하는 충현교인 육성을 돕는다.
2. 당회의 목회원칙을 준수하고 당회장의 목회연장의 도구로서 사명을 담당한다.
3. 필진(筆陣)의 독점을 배제하고 가급적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4.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의 대변지(代辯誌)가 되도록 한다.

• 이와같이 발행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동안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편집지침을 지키면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현지 제1호인 창간호의 사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행되는 불건전한 문서들이 우리의 인격을 좀먹고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건전한 신앙육성을 위하여 충현지는 발행된다. 이 충현지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상을 우리들이 깨닫게될 것이고 성도들의 교제가 증대될 것을 믿어마지 않는다.....”고 하면서 겸손하고 평범한 신앙인에게 유익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충현지를 통하여 참된 신앙과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충현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랑이 지배하며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도들의 신앙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사상을 전하며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같이 만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2백호, 5백호, 천호, 만호의 기념호가 나올 것을 믿으면서 기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충현

월간 충현 제100호를 발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충현지의 여러 집필자 및 실무담당자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20여년전인 1961년 초에 “충현 어린이”로 출발한 우리 충현교회의 문서 활동은 초창기에는 부진하고 미약하기 그지 없었던 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거듭해 나올수록 그 내용과 면모를 일신하면서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하여 지령 100호를 맞는 오늘에 와서는 “충현”지가 우리 교회내에서는 물론 이례나와 전국의 모든 교회에 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하는 그 본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충현”지는 창간당시 부터 우리 교회의 대변지로 등장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비평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중간에 잠시 중단되기도하고,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재정난에 부딪혀 임시로 정간을 했다가 제호를 바꾸어 다시 복간하는등 참으로 험난한 가시밭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별하신 돌보심과 독자 여러분의 기도 및 성원에 힘입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그 내용 가운데 교회소식은 물론 교인들의 신앙을 많이 취급하여 많은 독자들의 애호를 받고 있습니다.

필자가 작년에 해외여행을 할 때, 가는 곳마다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충현지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든가, “이번호를 받지 못했으니 결호를 꼭 보내주시오”하고 하소연 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우리에게는 왜 충현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로 충현지가 널리 알려지고 대단한 애호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감명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충현지의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이제 월간 “충현”은 우리 충현교회나 한국교회 만의 충현지가 아닙니다. 공산권을 포함한 전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횃불을 드높이 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적나라하게 전하는 세계인의 월간 충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교역자 평신도 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충현”지에 폭넓게 참여하여 아끼고 사랑하며 지금보다도 더 나은 “충현”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지령100호를 맞이한 “충현”지에 모든 정성을 집약시켜 우리 교회의 질적 부흥과 양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재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충현

세계인의 “충현”지가 되기 바란다



최 석 주 장로

(해외복음선교회장)

문서선교의 방향

선교적 차원에서의 문서운동은

우선적이지 서두르지 아니하며

포괄적이지 전문화시켜야 하며...



박 종 구 목사

(월간 목회 발행인)

1. 전체를 보여주는 활자 미디어로

70년대의 한국교회 문서운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바 사명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온 흔적을 볼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나름대로의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의 전달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 참여해 온 느낌이다. 비록 이 상황들이 각자의 개성에 깊이 치우친 것이라도 좋은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개인에 치우쳤다면 어떤 특정한 인물위주의 문서운동을 지칭하는 의미로써 한 개인의 여건이 문서매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개인의 목소리에만 치중하다 보니 한 색깔만이 거듭 진하게 채색되고 마는 경향을 우리는 그동안 수차 보아왔다.

또한 어느 단체에 치우쳤다면 그것이 교단이든 기관이든 그 단체의 특성에 액센트를 두다보니 자연 기관지 기능외에는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인이나 어느 특정 기관이 주도하는 문서운동은 우리를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또 획일화된 선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물론 개체의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체의 조화에 암적 요소가 되고 전체 속에서의 융해가 불가능해 질 때 그것은 독선이요 아집이요 동굴속의 우상이 아닐 수 없다.

출판이나 언론분야에 있어서 모두 이 시대의 사명에 동질성을 추구하고 그 동질성의 확산과 전문성을 위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문서 선교의 다양한 사명은 좀더 밝게 이루어지리라 전망된다.

일방통로만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저술시대의 도래를

한국 개신교 100년은 너무도 짧은 선교기간이지만 그 한가닥이 현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뿌리를 내려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론이 한국에 와서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서 소개 되었던 것이 아니고 서구의 이론이 그대로 전달되어 온 그런 풍토에서 교회가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교회의 양적 발전에 크게 활력소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템포가 느렸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출판계와 언론계는 외국의 저술을 번

역 소개하는데 급급해 왔다. 그것은 우리의 필진이 빈약한 상태이기도 했거니와 번역 소개의 안이한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초기에는 번역 소개가 선행되어야 함도 외면할 수 없으나 이제는 한번 숙고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우리의 필진에 의해 우리의 언어로 집필된 내용이 세계에 소개되어야 할 차체에 아직도 번역에만 급급하고 고작 개인기념설교집이나 자비간행하는 기독교 출판문화 풍토는 시급히 방향전환이 요청되며 모든 기독교의 문서 선교운동은 저술을 촉구하는데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할 줄 안다.

자신들의 저술이 없는 기독교 문서선교운동은 언제고 공허할 수 밖에 없다.

3. 보도의 기능에서 교시적 기능으로

작금의 매스컴들은 한결같이 독자들을 충격 아니면 피곤하게 만든다. 보도의 초점이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사건의 규모나 비리에만 집중 보도하다 보니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본질적인 문제는 좌절상태로 물고가는 일대 가치전환의 결과를 낳게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그 자체의 충실한 보도가 보다 적극적인 치유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도 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의 문서선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차대전때 레닌그라드에 홀로 고립된 한 소녀는 전쟁의 공포와 기아와 폭탄 속에서 본래의 자신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소설을 읽었다고 한다.

전쟁터보다 더 심각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 소리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여줌으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심성을 지니도록 자극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매스컴은 그 자체가 지니는 강한 리얼리티만큼 교시적 기능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가 힘의 문학적요 생명의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주고 그 환부가 자연치료가 되든 아니면 어떤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하며 또한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여 치유토록 하는 기능을 모두 매스컴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지금까지의 기독교 매스컴이 이런 방향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진단도 좋고 치유도 좋으나 기본적인 체질을 유지토록하며 또 회복을 위한 영양 공급도 중요한 것이다.

병든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치료받는 자에게 영양을, 회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양을, 또한 건강한 자에게도 영양을 공급해야하는 것이 기독교 문서운동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보도와 교시의 균형있는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4. 투명한 목적의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문서선교 운동을 뚜렷한 주제도 없이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선전하는 도구로써 문서선교기관을 소유하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이 몇몇하지 못할 때 그 자체에 연막을 피우기 위해서 매스컴을 소유하려고 한다.

문서선교란 그 본래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선교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동원될때 그것은 또한 견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한 개인의 논리없는 이론이나 평가없는 주장이 강하게 표현되어질 때 그것은 예기치 않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흔히 잡지나 신문에서는 사시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주장과 방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사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문제려니와 그 목적자체가 투명하지 못할 때는 보다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또 매스컴 자체가 외면 당하게 된다.

더러는 위장된 목적의식을 내세우고 막후의 각본을 슬금슬금 활자화해 나갈 때 공기로서의 공신력은 상실되게 된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매스컴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장 목적의 기만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독자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기독교 문서선교운동은 모든 기만작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성도를 대변하며 지키며 생명있는 호흡을 나누기위해 재 무정해야 할 때가 온 줄로 안다.

이제부터 우리의 문서운동의 주제는 선교라는 내용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교적 차원에서의 문서운동은 우선적이며 서두르지 아니하며, 포괄적이며 전문화 시켜야 하며, 호소력이 있되 결코 강요해서는 안되며, 지속성이 있되 피곤치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업 역시 위역 논리와 상반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업이 더욱 광역화해감에 따라서 문서운동 역시 같은 맥박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선교의 효율적인 반려자로서의 문서운동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연구 개발되어야 하고 보다 신중하게 경건하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활자미디어의 위력

활자 미디어가 필요로하는 글내용은

생동감 및 호소력,

그리고 감화력이 표현되어야.....



손 경 수 집사

(기독신보 편집국장)

약 7,8년전의 일이다. 여름 홍수로 인해 호남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재산손실및 인명피해가 무척 컸었다.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고, 급류에 휩쓸린 주택이 산산조각이 되어 잠잘곳이 없는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자고 호소한 적이 있었다.

신문 중간지면에 수해로 상처입은 현장 사진을 동판으로 떠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활자로 통하여 진지하게 간원한 것이다.

이 기사가 나간지 이틀후부터 전국교회로부터 수재의연금이 들어왔고 의류와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등이 박스로 옷보따리도 속속 들어왔다. 불과 1개월만에 수재의연금만 약2천만원이 접수되었고, 의류품등이 두 추럭분이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활자미디어의 위력의 일 부분이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사건들이 전파미디어 혹은 활자미디어를 통하여 초분을 다투어가며 정보가 입수 되고 뉴스로 전달되어 오고 있다.

비록 비행기로 수십시간이 걸리는 국외의 모든 내용들이 텔렉스 혹은 전송사진을 통하여 순식간에 우리들의 눈과 귀에 전달되고 있다.

활자미디어는 전파미디어가 포용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이 갖고 있다.

모든 사건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고, 여론형성의 균일적 이익이 있으며, 시각적이기 때문에 두뇌암기에 효과가 있다.

그뿐 아니다. 정서함양과 영구적 보존의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 모든이들은 활자에 대한 애착심은 물론 상대방의 의사전달, 약속이행등을 활자를 통하여 거래하게끔 발전된 것이다.

그러면 매체(媒体)발달에 따른 역사적 배경을 잠시 훑어보고 활자미디어 위력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1. 시간및 공간(空間)을 결합(結合)하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문자(文字)이다.

이른바 선사시대(先史時代)를 떠나 유사시대(有史時代)를 가능케 해 준 것이 바로 문자이며, 서양에서는 5천년 전에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楔形文字), 동양에서는 3천년 전에 은나라의 구갑문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인류는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문자를 통해 계승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방대한 경험영역의 확대로 발전이 가속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文字 이전의 시대에도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경험의 교환과 확대는 어느정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4萬年에서 5萬年전에 출현했다고 추정되는 지혜인(homo Sapiens) 보다도 몇10만년 전에 이미 상징을 쓰는 인간(homo Symbolicum)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의 원형(原型proto-culture)은 도구(道具), 언어(言語), 그리고 사회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것인데 도구인(道具人homo faber)이 될 수 있었던 형태학적인 특징은 인간이 다리로 직립(直立)하여 보행할 수 있고, 따라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였다고 추측되고 있다.

비록 엄지 손가락이 다른 네개의 손가락과 대항하지 않고 다섯 손가락이 한 줄로 되어 있었을 망정도 구인은 돌이나 뿔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으며 집단생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언어없이 집단생활을 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아이나 짐승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단순절로 된 음성성의 반복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정신내용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감정의 표출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색한 손짓과 발짓, 딱딱한 안면 근육의 신축(伸縮)을 통한 표정등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전부였으며, 그들은 이른바 언어를 갖지않은 사람이라고 불리어졌다.

그러나 「미드」(George H. Mead)의 학설은 동물의 몸짓은 자각작용이 없는 단순한 표출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데 대해 인간의 몸짓은 정신적 기호(記號), 즉 의미의 기호로서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내도록 미리 계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드」는 이것은 언어적 제스처라고 부르고 있다.

또 동물심리학자인 『윌러』도 짐승의 소리는 노여움, 공포, 절망, 슬픔, 고통등 감정의 단순한 표출(表出)이지 사고에 의한 의미를 지닌 표현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소리가 인간의 언어로 변하는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입의 개폐운동, 즉 혀와 입술의 미묘한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손의(글을 쓸수 있는)자유화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입의 개폐운동과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가능케 해 준 것은 똑바로 선 자세로 딱딱한 고정식물(固形)의 처리를 손이(글을 쓸 수 있는)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지보행(四肢步行)의 자세로는 긴 이야기를 큰목소리로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포함한 인체어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원점인 동시에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언어와 더불어 중요한 원형적의미를 지니며 언어를 文字로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 것이 그림이다. 그림은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며, 오랜 옛날 화석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류조상의 생활을 가장 세밀하게 나타낸 기록이기도 했다.

인류의 손으로 그려진 것으로 남아있는 그림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부근의 동굴벽화(洞窟壁畵)로 이것은 약 2만5천년~4만년전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대인(古代人)이 관념이나 논리에 앞서 그 마음속에 나타난 환상이나 이미지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조각으로 간단하게 땅위나 벽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상상해 볼만도 하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내용을 돌비에 새겨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창조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음성언어가 문자로 굳어지는데는 약40~50만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요했다. 또 그것을 보편화 하는 데는 수천년이 필요했다. 진보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연륜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체어에 있어서 신체 그 자체였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소재는 점차 신체이외의 것으로 확장해 감에 따라 문자에 대한 필요성을 알 필요가 있다.

① 文字

음성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범위는 극히 제한된 것이다. 밖으로 확장된 음성호(音信號)는 뿔이나 조개껍질, 나무나 짐승껍질로 만든 북, 쇠붙이로 만든 타악기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신호의 도달거리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확대된 도달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은 상호이해, 협력등을 어느 정도 촉진시켰으며, 집단을 보다 조직 체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문서선교와 목회

이다.

音信號에 대하여 視信號는 눈에 띄기 쉬운 하얀형질으로 된 것발이나 불의 발견 이후에 생긴 연기등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청각, 시각신호는 몹시 유치한 것이었으나,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러 전기통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도 나팔, 군대의 북, 수기신호(手旗信號), 발화신호등의 형태로 오랜 세월을 걸쳐 인간이 사용해온 것이다.

上記한 신호의 근본적인 결함은 도달거리의 제한성, 그리고 1회성(일시성), 정보량의 빈약성등이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길다란 막대기나 동물의 뼈에 길고 짧고, 깊고 얇은 표식을 한다든가, 길다란 줄을 여러가지 간격으로 맨다거나, 색채를 칠한다든가 하는 보다 복잡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른바 분절신호매체로서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좀더 많은 정보량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지닌 간단한 기록성은 이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느 정도 가능케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유형의 매체보다도 문자와 가장 밀접하게 결부된 매체는 그림이었다.

롱펠로우가 그의 유명한 서사시 「야야화사의 노래」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그림 문자를 묘사한 것은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대지를 나타내는 데는 직선을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는 데는 직선위에 弧를 그리고, 백색공간으로는 대낮을 나타내고, 별을 그려 밤을 나타냈다. 또 해가 뜨는 아침은 왼쪽에 점을 찍고, 정오는 정상에 점을 찍고, 저녁은 오른쪽에 점을 찍었다. 한자는 이와 같이 줄기와 가지로써 「木」字를 만들고 「木」字가 둘이 모여 수풀「林」을 이루며, 셋이 모여 삼림「森」을 의미하게 되었다.

세계 각 민족의 文字는 대개의 경우 그림문자를 변형해서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문자가 지니는 의의를 몇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그림문자, 상형문자, 표의문자, 표음문자의 발달과정은 인간생활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사고에서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로, 즉 기호인식에서 상징인식으로 그 사고 능력을 발전시켰고, 두번째로는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잉여물질 축적의 결과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인, 즉 지배계급이 생겼다. 지배계급은 문자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률, 종교, 계율, 계보, 전기, 사기등을 기록·보존·계승하였으며, 점차로 지배계급의 문자와 서민계급의 문자로 이

월간 총현 100호 출간을 축하하며 그 노고를 치하한다.

필자는 지난 2개년간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설교와 성경공부 이외에 인쇄된 글들을 통한 전도와 신앙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된 필자의 신앙간증문을 교회 주변의 집집마다 돌리게 했고,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도들의 간증들로 엮어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라는 제목의 전도 책자를 교회 주변 아파트 가정마다 돌리게 했다.

설교 보다도 소박하고 진실되게 표현된 간증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 잡은 한 경우가 많았

원화되었다.

세세로는 이와같은 문서의 기록, 처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서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네째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표현상의 제약을 탈피하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적으로도 후세에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섯째는 문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세계 이외에 그 자신의 독자적인 발전법칙을 지닌 다른 차원의 이른바 초유기적인 문화세계를 수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② 活字

그래서 이러한 문자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 즉 잉크와 종이를 개발해야 했다.

石材, 粘土, 竹材, 楮승가죽, 楮승뽕등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소재를 충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기원후 105년경에 발명된 후한왕조의 먹과 종이는 문자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판인쇄의 기술도 기원후 4백년경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활자문명 이전의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비록 기록성과 원거리 전달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얼마전 저희 집에 넣어준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몇 사람들의 간증들로 엮어진 한장으로 된 전도지를 돌리기도 했다. 과장된 체험담 보다는 하나님을 접하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한 고백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하는 것같았다. 과장과 허식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그런 것 같았다.

필자는 또한 신도들의 신앙적 사고와 생활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글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사하여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곤 한다. 신앙 수필, 성경 연구, 때로는 단편 소설 등 어떤 형태의 글도 좋다. 최근에는 크리스찬신문에 실린 “조선특별지원병”이라는 근대정치적 단편 소설을 복사하여 배부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 채널은 극히 제한된 소수자에게만 열려져 있었다. 수용자를 단수에서 복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제(copy)기술이 필요했다.

기원후 900년경에 중국의 목판(木版)기술은 목판 활자로 발전되었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동판금속 활자로 발전되어갔다.

1456년 구우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인쇄술의 발명은 그 의의가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활자에 의한 대량인쇄기술의 보급에 대한 맥루한(M. McLuhan)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미디어학설에 의하면 바로 매체 자체가 인간과 테크놀러지를 하는 적극적 작용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활자인쇄술은 새로운 인간 및 환경과 테크놀러지를 창조해냈다는 뜻으로 이른바 활자형 인간과 활자형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 특징은 시각중심적, 고정적, 획일적, 참가거부적, 국가주의적, 선적(線的), 단편적, 반복적, 분류적, 연대반응적, 그리고 정신분열적 등등으로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활자미디어의 위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글을 써야한다. 무조건 쓰는것이 아니다. 생각하며, 연구하며, 책임을 지고 쓰되 사실적이어야 하고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

그리고 글 자체 혹은 내용이 생동감이 있어야 하며

지금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 바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때라고 생각된다. 신앙인적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현대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책을 편집하여 출판했다. 크리스찬의 사회관·가정관·직업관·교회관·역사관·이적관·고난관 등을 다룬 글들을 한데 묶은 책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도들의 신앙 인격과 생활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편집하여 출판 보급하고 싶다. 자유주의 노선의 글들이 많이 보급되는데 비해 복음주의적 또는 개혁주의적 노선의 글들이 별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해놓으신 방법이 쓰여진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문서 선교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김 명 혁 목사

(강변교회사무)

호소력과 감동성이 함께 글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필자는 언론생활을 무려 16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그 가운데서 활자를 통해서 분에 넘치는 감격성과 또 한편으로는 환멸성을 체험한바가 있었다.

사회신문기자 시절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교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날, 한 분이내가 근무하는 신문사 편집국을 찾아왔다.

옷차림이 남루했고 얼굴엔 피약별에 겹쳐 그슬려 매우 피곤한 형색의 40대를 넘은 목사님이였다.

온 목적과 용건은 서울 변두리 지역에 개척교회를 설립했는데, 재정적 뒷바침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동안 일한 노임을 주지못해 인부들의 행패가 심해, 목사양심으로 도저히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엄치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곳에 교회당을 짓게되면 지역복음화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게 되겠다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아마 개척교회이니 교인도 별로 없었을 터이고, 목사 혼자 기도하며, 몸부림쳤으나 명쾌한 해결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그 목사가 순서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간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1면에 박스기사로 처리하여 전국교회에 호소했다.

신문에 이 기사가 나고, 주일지난 월요일 출근하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문기사를 보고 서울시내 모교회 장로가 전화를 건 것이었다.

내용인즉 그교회 당회원들이 눈물겨운 그 기사를 읽고 돌기로 결정했으니 속히 그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은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고, 지금은 교인수도 팽창하여 자립하고, 국내복음및 해외선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활자미디어의 대단한 위력이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있었다.

신학적 이단을 파헤치기 위해 모기도원의 신앙, 교리, 운영방법, 그리고, 그기관의 대표자의 신앙행적 등이 신문에 기사로 나갔는데, 당사자인 그 대표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물론 그 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조사처리한 그분의 이단시비여부와 사생활문제이었고, 이것을 한국교회 교우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인용보도했을 뿐이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5년간 재판을 받는 쓰라린 경험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것은 활자미디어 때문에 오는 한면성에 해당된다.

또 그뿐만 아니다. 모 신학대학 교수의 논문이 시리즈로 나가게 되었다.

한번은 편집국장을 찾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고 보니, 필자인 그 교수가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신문에 난 자기글이 완전히 자기가 쓴 것과는 정반대이니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훑어보았으나 본문에는 이상이 없는 데 중간 제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은」과

「느」의 토씨 하나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함축성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신문 제작당시 교정의 재확인인 없는 탓으로 미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일단은 편집국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지만, 글을 쓴 당사자인 그 교수는 신학적 이단으로 오해되어 신학활동과 교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신문뿐 아니라 잡지 역시도 활자를 이용한 매체인 만큼 그 사명이 막중하다.

우리 「월간 충현」에도 계속 권두언을 쓰고 있는데, 일단 잡지가 발행되면, 원고속의 낱말 하나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되는 경우가 있다.

문맥상 문장이 잘 다듬어 지지 않았단가, 글 내용이 성도들에게 별다른 도움과 유익이 못된다는 등의 뒷 얘기가 나돌기 마련이다.

3. 글을 마치면서

더 긴 이야기를 쓸 생각은 없다.

활자미디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활자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글이 읽혀져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며, 실천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글을 써야하고, 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활자미디어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활의 지혜를 얻게되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듯이, 글자를 선용한 아름다운 내용의 글이 계속 발표되기를 바란다.

호리라도 활자미디어에 잘못 올린 내용이 성도간의 불화,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슬픈일은 없다.

519

이 책은 일년 365일 동안에 계속하여 새벽기도회의 설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경 본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성경 본문을 필히 읽고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더욱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예화나 기타 세속적인 말들은 거의 배제되었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과 부활 신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새벽 설교 뿐만 아니라 그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간 안내

보이스사 · 740페이지 · 7,000원

새벽 설교 365일

큰 헌터 지음 · 권명달 옮김

• 추천의 글 •

25년이 넘도록 우정을 나누어 온 존과 크리스틴 헌터 부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명량한 승리에 찬 소식을 수많은 이들의 생 속에 불러넣어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체험을 통해 이 나날의 영의 잔치를 준비함으로 신앙설교를 발전시켜 온 셈입니다.

빌 브라이트

(C. C. C. 국제 총재)

문서전도의 필요성

대중전도, 개인전도, 문서전도가 다 중요
하나 그 중에서도 문서전도가 가장 폭넓고
효율적인 현대전도의 형태라 하겠다.



유 용 구

(생명의 말씀사 출판부장)

문서전도는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 방법 중의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감하신 말씀인 성경을 문서를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 계시다. 그 문서화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즉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특히 바울 등은 문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교부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 문서에 의존하여 복음 전도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와같이 문서전도는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의 하나며 그 효율성이 높은 데에 비해, 오늘날 이 문서전도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문서전도를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투철한 성경적 사명(聖經的使命)이나 소명의식(召命意識)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도서를 파는 것' 자체는 문서전도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우기 영리만을 그 주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 도서를 취급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일반 세속도서를 취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문서전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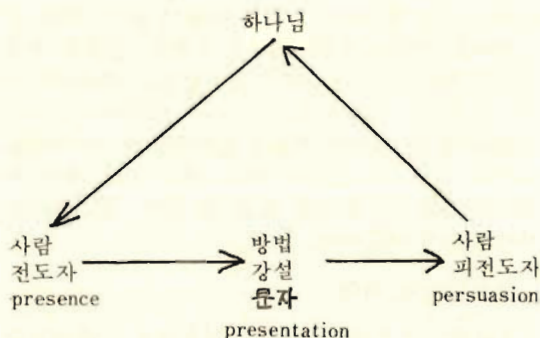
모름지기 문서전도란 문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영혼들을 거둬나게 하고 그들을 성장케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선교세계에 파견, 하나님의 왕국확장과 그 영광을 목표로 하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서전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활동전반을 다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그 성경을 기초로 하는 별도의 기독교 도서를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전도학에서 전도의 정의를 말할 때 1) Presence(존재), 2) Presentation(제시), 3) Persuasion(설득)이라는 세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그 정의를 요약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존재(presence) 자체가 전도의 기초가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인격을 통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사람은 전도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으로서의 내용 제시(內容提示, Presentation)가 된다. 이 내용 제시는 선포(Proclamation, 이사야61:1~3)와 예언(Prophecy, 살전 5:20)을 포함하는데 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첫째 지위는 강설(講說)이 차지하며 둘째의 지위는 바로 문서(文書)가 점유하며 그 다음으로 방송, TV, 음악, 연극, 미술 등의 전도수단이 있

으나 이것들은 대개 문서를 기초로 한다. 언어가 있는 후 문자가 있었으며 언어가 존재했을 때 거기에는 강설이, 그리고 문자가 있는 후 지금까지 저기에는 문서전도가 계속되었음을 역사(歷史)가 뒷받침한다.

이러한 내용제시의 결과로 또 하나의 인격인 피전도자가 변화되는데 이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득(persuasion, 고후 5:11)과 권고로 피전도자의 믿음과 구원을 확정지어 준다.



따라서 문서전도의 의미와 그 위치는 매우 중차대하다.

문서전도의 효율성

문서전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려면 이 문서전도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 문서는 용이성(容易性, availability)을 갖고 있다. 문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문서는 안방 책상 위까지 올라가며 구석 구석 사람의 손이 언제나 접할 수 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먼길에 차비를 들여 가서 한정된 장소에서 강론을 듣는 것보다 개인의 여가시간을 잘 조정하여 조용한 시간에 대하게 되는 문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보라.

둘째로 문서는 초인간성(superhumanity)을 가지고 있다. 강사는 그의 배경과 교파와 신학과 학문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초청되지만 이 문서는 간단한 저자소개로 즉시 접할 수 있고 심지어 교파와 신학이 꼭 마음에 안드는 저자의 문서도 연구나 다른 선택 내용의 취사선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활자화된 선교사>

라고 한다. 이 활자화된 선교사는 우편으로 세계도처에 전달될 수 있다.

세계 문서의 초주의성(super-ideological)을 들 수 있다. 즉 문서는 공산주의나 회교권 등에도—비록 그런 곳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지만—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Brother Andrew의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생명의 말씀사 간)라는 책은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가 되며 또 공산주의권 선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축소인쇄 문서를 제작, 편지형식으로 복음문서나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네째는 문서의 초공간성(super-spacious)이다. 이것은 국가와 지역 등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많은 양의 문서를 소위 복합매체방식(a multi-media method)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설은 반복이 어려우나 이 문서는 영구보존이 가능하므로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자 예를 들면 장님, 귀머거리 등에게도 무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이 문서는 경제성(economicity)을 지니고 있다. 전도지 한 장에 3~5원이지만 이 전도지 한 장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경제성은 굉장하다고 하겠다. 요즘 한 시간 동안의 강사비가 보통 3~5만원인데 비하여 이 문서비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과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만 충실하다면 문서가 통계적으로 말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큰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 문서운동을 위해 집필하고 출판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과 노고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문서전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러면 아래에 그 필요성을 5가지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문서전도의 필요성

첫째 인구폭증 때문에 문서전도가 시급히 요청된다.

현대의 인구폭발은 자연히 불신인구를 증가시킴에 따라 죄악이 관영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복음전도의 필연성이 증가된 것이다. 그리고 각국 언어를 통해 인구폭증에 대응할 만한 전도 방법은 선교사 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문서전도의 힘을 빌리는 길이 유익하다. 대중전도, 개인전도, 문서전도

는 다 중요한 전도의 방편이지만 그 중에서 문서전도가 가장 폭 넓고 효율적인 현대전도의 형태라 하겠다.

두번째는 다른 종교, 특히 공산주의나 마호메트교 같은 종교의 존재는 우리의 문서전도운동을 자극한다. 오늘날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이 두종교의 나라들 뿐이다. 이런 나라들에게 선교하는 방법이란 방송이나 문서를 통하는 것 뿐이다. 이때 문서전도의 효율성이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 세계정복을 꿈꾸고 있다. George Verwer 라는 선교사가 그의 저서 Literature Evangelism 「문서선교」(Moody Press)에서 인용한 프랑스 공산주의자의 말을 소개한다.

“복음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고, 우리는 현실주의자로서 행동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전파를 위해 돈과 시간을 인색하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 헌신했다. 우리 공산당은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때가 묻을까봐 두려워 일하지 않는다.”

이들의 세계정복의 꿈을 보라. 특히 이 공산주의의 선전문서는 기독교문서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문서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통한 세계정복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사야 60 : 1).

세번째는 물론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광신적이고 열정적인 기독교 이단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노력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문서전도의 기저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이단들 역시 다량의 문서를 통해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그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

네번째는 전도자와 설교자의 양적 한계 때문에 이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문서를 동원해야만 한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신 주님의 탄식은 이 세대에도 적용된다. 전도자의 양성은 시간이 걸리며, 그 양적 한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문서전도를 함으로써 보충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는 전도자나 성직자 등 기독교 기관의 지속성의 결여 때문에 문서전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전도자나 부흥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하지만 그들의 저술은 남아서 그 진리선보를 계속한다. 칼빈, 루터, 스필겐, 무디 등이 쓴 저술들이 계속 남아서 아직도 복음전파의 역할을 지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해 준다고 하

겠다.

문서전도의 방법과 제안

문서전도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인 제안과 더불어 그 실효성이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나 개인이나 기독교 기관의 형편에 따라 이것들을 적용할 때 취사선택할 수도 있겠다. 원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게 마련이므로 의욕과 열정이 방법을 앞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론 전체(Methodology)에 매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도의 생동력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여기서는 그런 방법론 보다는 문서전도의 실제와 관련, 이미 출판된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여 복음전도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설교, 성경통신강좌, 육성(Follow-up)지침, 복음서 등을 인쇄하여 회람하게 한다.

2) 평신도를 격려하여 전도지 등을 통해 문서전도를 시도하고, 그들을 기동화시킨다.

3) 직장, 이웃, 시장, 병원, 교도소, 학교, 은행, 터미널, 공항, 이용원, 미장원 등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기독교문서를 전달한다. (우편이나 인편으로)

4) 복합매체(Multi-Media)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한다. 즉 영화, 성경공부, 교육, 설교, 세미나, 문서 등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호 연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5) 단계적 교육이나 연령층 교육이나 제자훈련 등을 위한 조직적, 단계적인 문서활동을 벌인다.

6) 목사, 장로, 사모 등 교회의 지도적 직분자들에게 한달에 한 권씩 독서할 것을 권고한다.

7) 교회의 남·녀 전도부나 청년회에 전도부 사역의 일환으로 문서전도부를 설치하여 교인의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대회, 개척교회에의 도서전달, 군대나 해외 선교지에서의 도서발송 등을 할 수 있다.

8) 교회도서관 설치 지원 및 운영, 교회내 문서양육활동 전개, 정기 신간도서를 교회 게시판에 안내하는 일, 각 기독교 출판사의 도서목록을 비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9) 문서전도 예산의 별도책정, 이것은 특히 일반 평신도를 위한 것이다.

10) 교회부설 문서출판사의 설치 및 운영

11) 문서전도요원을 훈련하여 목회와 설교를 보충하고 다양화함

12) 문서선교를 해외 선교정책에 포함시켜 예산과

구체적 이용방안 등을 연구 실시한다.

* * * * *

이상과 같이 우리는 문서전도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서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서전도의 필요성을, 아니 전도 자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가?

12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리새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권위만을 자랑하면서 종교적 낭만을 누리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사도들이 방해한다고 그들을 뺨박하였다.

우리는 이 시대, 즉 그리스도의 제림이 임박한 시대, 그러므로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그래서 추수해야 할 이 시대에 혹시 종교적 낭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하며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실의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뒤쫓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메시아적 죽음을 깨닫지 못한 나머지, 이를 최종적인 한계

로 생각하고 실망해 버렸다. 그러나 '인자에게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그들을 말씀으로 권고하시고자 그들 뒤에서 행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허약한 믿음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 그들과 교제하셨다.

오늘날도 실의에 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꼭 차 있어서 이 말씀의 책망과 위로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풀어서 그들 심령 속에 넣어 주는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 이 문서와 이것을 집필할 헌신적이고 소명받은 문서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겠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간 길을 따라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눅1:1-2)

"인자야 너는 밭을 먹여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가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고하라"(겔3:1) 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종교]

김창인 목사 해외집회 일정표

(1982. 5. 25 ~ 8. 15)

5월25일(화)	: 서울출발(SEGUL)	7월1일(목) - 4일(일)	: 알렌틴집회(ARGENTINA)
5월25일(화) - 26일(수)	: 로스앤젤레스(L.A.)	7월6일(화) - 11일(일)	: 칠레집회(CHILE) 222793
5월27일(목) - 30일(일)	: 세계한인선교회참석		(한인장로교회 당회장 유재일목사)
5월29일(토) - 31일(월)	: L.A. 산상기도원 집회	7월15일(목) - 18일(일)	: 시카고집회(CHICAGO)
6월3일(목) - 6일(일)	: 토론토집회(TORONTO) 416-249-5461 (영락교회 당회장 김재광목사)	7월20일(화) - 25일(일)	: 서독집회 및 기타(W-GERMANY) 06121-525339
6월7일(월) - 8일(수)	: 뉴-욕집회(NEW YORK) 212-786-9721 (빌립보교회 당회장 이종표목사)		(비스바겐한인교회 당회장 육호기목사)
6월10일(목) - 13일(일)	: 휴스턴집회(HUSTON)	8월2일(월) - 8일(일)	: 애굽 카이로집회(EGYPT) 634620 (카이로한인교회 당회장 이준교목사)
6월14일(월) - 15일(화)	: 뉴욕출발, 브라질 도착	8월10일(화) - 15일(일)	: 리비아(LIBYA)
6월16일(수) - 20일(일)	: 브라질집회(BRASIL)	8월20일(금)	: 귀국예정
6월24일(목) - 27일(일)	: 파라과이집회		

※ 당회장 목사님 해외집회인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서선교의 현황

한국교회 언론·출판계가

문서선교의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조 선 근 장로

(당회원, 기독교문사 상무)

1. 머리말

앞으로 2년후면 한국 개신교 100주년을 맞는다. 한 세기동안 한국교회는 민족과 더불어 수난을 겪는 중에서도 크게 성장, 발전해 왔다. 이 점 하나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고 한편 기독교를 전해 준 분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개신교의 경우 전도자보다도 그 문서가 먼저 들어왔다. 당시 한국의 해국정책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저들은 비밀히 기독교서적을 보내기에 힘썼다. 따라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됨에 있어 기독교문서가 그 선구적인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문서선교운동은 1889년 배재학당 안에 삼문출판사를 세우고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인 한국성교서회의의 개설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성서번역 출판, 찬송가 편찬, 교회신문, 교회정기간행물, 신학서적 등 각종 단행본을 출판함으로써 한국교회 성장에는 물론이고 한국 근대사에도 지대한 공헌과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2. 현 황

종로서적·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종교관계 특히 기독교서적들이 꽤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출판계의 불황으로 미루어 주로 성경과 찬송의 판매고를 이르는 것처럼 들린다. 아물든 이같은 현상은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기인된다고 본다. 사실 오늘날 일반 출판사에서조차 기독교관계 출판에 손대기 시작하는 것도 위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약 2천이 되었는데, 그중에 기독교계 출판사는 145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통계보다도 많은 교회들이 자체 안에 출판부를 신설하고 문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나 수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나오는 「주보」에서도 문서선교에 착안하여 제작하고 다량의 전도지들을 자체 혹은 위탁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오늘의 문서선교는 그 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문서선교분야에 대하여 역사적인 주의를 좀 곁들여 살펴보자.

(1)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1세기동안 베스트셀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먼저 만주에서 출판된 로스판 성경은 로스 목사가 청년학자 이용찬·서상륜 등과 함께 한문과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 1882년 만주에서 발행했다. 1887년에는 신약전서가 「예수성경전서」란 이름으로 출간되어 국내로 들어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한문과 일본 성경을 대본으로 1884년 「마가복음」을 출판했다. 그러나 두 번역판은 지방 사투리가 많아 언더우드·아펜젤러·소크렌튼 등 초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표준어로 된 번역을 하여 신약은 1904년에, 구약은 1911년에 출판했는데 1937년까지 이 성경이 공인된 역할을 했다.

8·15해방후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되자 충실한 번역이 요청되고 한편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맞춰 성경을 교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25년 대한성서공회에 의해 마침내 교정판이 나왔다. 그후 회람이 원전을 직접 현대어로 번역 1967년 새번역 신약전서가 나오고, 카톨릭과의 합작으로 1977년에는 공동번역 성서(신구약)가 출판되었다. 같은해 생명의말씀사에서는 신약을 「현대인의 성경」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2) 찬송가

성경과 함께 중요한 문서사업은 찬송가와 출판이었다.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교회 찬송가 가사를 큰 종이에 한글로 써서 벽에 걸고 불렀다. 첫번째 찬송가는 1892년에 비로소 감리교의 존스 목사「찬미가」가 삼문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이어 1893년에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방가」가 출간되었다. 그후 1908년 장·감 두 교파의 「합동 찬송가」가 나오고, 1919년과 1928년보충 개정되어 「합동신정찬송가」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4년 장로교에서 단독으로 「신편찬송가」를 발행함으로써 합동찬송가의 분열이 생겼다. 한편 성결교회에서는 1911년에 「복음가」를, 구세군에서는 1913년 「구세군가」를 출판 보급하였다.

그후 장로교·감리교·성결교 3대 교파에서는 각각 「신편찬송가」 「신정찬송가」 「복음성가」를 출판, 사용해 오다가, 해방후 1948년 세 교파가 각기 쓰던 찬송가를 모아 제편집,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였고, 다시 1967년에는 「개편찬송가」가 증보, 간행되

었다. 이때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1965년 따로 「새찬송가」를 발행하게 되었고, 또 군소교관 등 일부에서는 「합동찬송가」를 약간 수정, 역시 「합동찬송가」라는 이름으로 발행, 사용하고 있다.

(3) 신문

우리나라의 교회신문은 독립신문이 나온 다음해인 1897년부터 시작, 교회의 기관지 구실을 하면서 주로 교회통신, 성서연구, 신앙강좌, 세계교회의 동향 등을 게재하였다.

1897년 2월 감리교회의 아펜젤러가 창간한 「조선크리스토회보」는 한국교회 신문의 효시가 된다. 이 신문은 1915년 장로교의 「예수교회보」와 합동하여 「기독교신보」(基督申報)로 개칭하여 장·감 두 교파의 연합기관지로서 1936년까지 한국교회의 유일한 교회신문이었다. 1897년 4월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주관으로 발간된 「그리스도신문」은 뒤에 「예수교회보」로 개칭되고, 1915년 장·감 합동의 「기독교신보」와 합병되었다. 1907년에는 「구세군보」가 나오게 되었다. 1936년 창간된 「기독교보」는 장·감 연합의 「기독교신보」가 자유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장로교 보수측에서 만든 신문이다. 그뒤, 1942년에 창간되었으나 1년도 채 못 간 「기독교신문」은 일제시대의 마지막 교회신문이었다.

해방이 되자 교계에는 각종 신문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현재 발간되고 있는 주요 기독교 주간신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공보」는 1946년 1월 「기독교공보」로 시작했으나 장로교(통합) 기관지가 되고 나서 「한국기독교공보」로 개칭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신문이다. 「기독교신보」는 본교회가 소속한 장로교(합동) 기관지로 1965년 1월에 창간되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1960년 7월에 창간된 「크리스찬신문」은 초교파적인 신문으로 수많은 교파의 중립적인 위치를 견거하고 있다. 「교회연합신보」는 1965년 12월 발간되어 역시 초교파적인 신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복음신보」는 1960년 「복음일보」로 시작, 뒤에 「한국복음신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용문산계통의 기관지이지만 다소 초교파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

(4) 정기간행물

우리나라 기독교잡지의 효시는 1889년 아펜젤러에 의해 창간된 「교회」로서 약10년간 계속되었다. 감리교의 「신학월보」는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월간지로

1900—09년에 발간되었다. 얼마 뒤를 이은 감리교신학교의 「신학세계」(1916—40년)는 신학연구를 위한 격월간지로서 장로교 평양신학교의 「신학지남」(1918—41년)과 쌍벽을 이루었다. 「신학지남」만은 현재도 계간지로서 발간되는데 보수적 신학 입장이 특색이다. 성결교의 「활천」(1923—41년)은 해방후 다시 복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주일학교연구」가 1918년에, 「청년」이 1921년에 나왔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무교회계통의 「성서조선」(1927—1942)은 해방후 복간 계속 간행되고 있다. 개인지로는 「신생명」(1923년), 「진생」(1925년), 「신앙생활」(1932년) 등을 들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해방후 복간되어 높은 발행부수를 기록했다.

대개 큰 교파에서는 교파 또는 기관의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해방과 함께 감리교회에서는 「감리해보」를 복간, 이후 「기독교세계」란 이름으로 오르고 있다. 기독교장로회에서는 현재 「기장회보」를 내고, 구세군본영에서는 1909년 창간된 「구세군보」를 복간, 계속 발간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활천」을 계속 발행하고 있고, 대한침례교회에서는 「침례회보」를, 하나님의성회는 「순복음」을 계속하며 한편 같은 교단인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신앙계」를 내고 있다. 고신대학에서는 「개혁신앙」을, 대한신학교에서는 「생명샘」을 발간하고 있다. 그밖에 초교파 성격의 월간지로 「월간목회」를 비롯하여 「기독교사상」, 「교사의 벗」, 「기독교 교육」, 「성별」, 「새가정」, 「새벗」, 「다락방」 사진화보인 크리스찬라이프 등 많은 잡지들이 출간되고 있다.

⑤ 일반도서

해방후 교회의 발전과 함께 기독교문서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기독교계 도서출판도 어느 정도 활발해졌다. 작년말에 집계된 1982년 기독교 종합도서목록 자료에 따르면 어느 부분에서 다소 중복이되지만 기독교도서는 총5,422종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서들은 설교집·수상집을 비롯한 일부 도서들을 제외하고는 번역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떤이들은 이제 번역시대는 가야하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정립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70년대 초까지도 단행본에만 의지하던 기독교출판계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석과 사전 등 전

집류 발간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박윤선 성경주석」(전20권), 「이상근신약주석」(전12), 「매튜헨리 성경주석」(전45권), 「렌스킨신약주석」(전19권) 등이 완간되자, 한국 개신교선교100주년 기념으로 기독교회사·성서교재간행사·기독교문사가 각각 「성서대백과」(전8권), 「성서백과대사전」(전12권)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완간 혹은 발간중에 있다.

3. 맺는말

한국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도 했고 자랄할 것도 많지만 치료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문서선교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교회가 문서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한쪽에서는 독버섯같은 사이비종교서적이거나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문서들이 언제 나와 횡행할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문서선교의 공해로 등장한 번역상의 문제 등 하루속히 치료해야될 부분들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내일의 한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활동에 있어서 없지 못할 매체 문서선교의 밝은 날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언론계와 출판계가 다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개혁신주의 교회와 문서운동

기독교 문서운동의 핵심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이 계시를 알게 됐다.



채 기 은 목사

(전 기독교신보사장)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하박국2 : 2-3)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1643년 부터 1648년 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그리고 “헌법”등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가운데 제일 첫 대목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나”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요리문답 제1조는 바로 칼빈의 정신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칼빈주의에서 나왔다. 칼빈주의는 성경에 근거한 사상이다.

칼빈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성경에 가장 합당하고 성경에 맞게 해석하며 성경에 모든 관점을 두었으니 칼빈을 안정하는 것이지 성경보다 칼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 정신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웠으니 실질적인 미국의 창건자는 칼빈이라는 말이 나옴직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국가를 이룩했을 때 청교도 대부분이 구라과에서 칼빈의 사상에 동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청교도정신이 얼마나 농후했는지 모른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먼저 주장한 것이 제사금지, 주초금지였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선교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제사를 중단하고 주초를 과감하게 끊고 캉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개혁신주의 교회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믿을만하고 주장할만하고 그대로 생활해야만 한다. 이와같은 사상의 매력 속에서 문서운동을 시작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다면 비성경적인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전하는 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가?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배가 고틈 때 어떻게 하는가? 첫째 “말”로, 두번째 “표정”으로, 세번째로는 “글”로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의사 전달은 말이나 표정 보다는 글이다. 글자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

그런데 기독교의 문서운동이란 “기독교의 정신을 문자로 기록해서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사상 제일 처음으로 문서운동을 시작한 분이 누구이겠는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문서운동의 창시자는 곧 하나님이다. 출24:12에 10계명을 처음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시 명백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두번째이나 10계명을 직접 써주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설명할 때 모세가 기록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은 것이다.

모세는 행7:22절에 있는대로 애굽의 학문을 배워 그것을 완전히 통달했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무술도 배웠다. 행17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고대 애굽의 문명을 다 섭렵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배운 그 학술, 그 문자로 썼다. 기독교 문서운동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그 계승자는 모세인데 하박국서를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2절)라 했는데 기독교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묵시 즉 계시인 것이다. 이 계시란 비전이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도 물론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4절)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누가 주장했는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부르짖었고 로마서1장에도 나오고 갈3장, 히브리서에도 인용했다.

행함으로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고행주의이다. 루터가 바티칸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의 돌맹이를 다 뜯어다놓고 바티칸에 만들어 놓은 후, 누구든지 무릎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죄가 다 없어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루터도 고행하면서 한참 기어올라가다가 생각하기를 “로마서에는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무릎으로 저 계단을 다 올라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나, 도로 내려가야겠다”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곧 계시인 것이다.

기독교 문서운동의 핵심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이 계시를 알게될 뿐만 아니라 문서운동의 내용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 내용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한다.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 먼곳까지 볼수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보급을 잘하라, 선전을 잘하라,”는 뜻이다.

또 한가지 “명백히 새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교정만 똑똑히 하라는 말이 아니다. 디자인도 잘하고, 레이아웃도 잘하고, 장정도 잘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구매의욕을 갖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보수교단, 개혁신의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 잡지, 교과서, 단행본 등을 자유주의 교단에서 나오는 문서들과 비교해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물건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명백히 새기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의 내용도 포함된다. 남들이 보기에 좋게 꾸며야 한다.

거리의 서점에 가서 보수계통에서 만든 책과 자유주의 계통에서 만든 책중 어느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가 한번 살펴보자. 또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책과 일반 사회에서 나온 책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출판사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나오는 책이고 우리 보수개혁신의 계통에서 나오는 것은 내용은 좋은데 디자인과 볼품이 전혀 없는 편이다. “내용만 좋으면 됐지 다른게 무슨 상관이야”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보기도 아름답고 좋으면, 구매자로 부터 더 흥미를 끌어서 더욱 많이 보급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복음이 더 많이 넓게 전달될 것이다.

근래 미국 청년들이 성경을 읽지않고 점점 성경에서 멀리 떠나가니까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책을 펴냈는데 그 제목이 “위대한 생애”이다. 저자는 이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현지를 여러번 답사하고 랍비를 만나고, 고서적을 보고 여러 문헌을 다 종합하여 예수의 일대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놓은 것이다.

“위대한 생애”는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활을 흥미진진하게 이해하고 “이것보다 더좋은 성경을 보아야지..., 주석을 읽어야지..., 아니 그보다는 성경

원전을 보아야지..."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욥기 26장7절을 보면 땅을 공중에 달았다고 했다. 욥기의 저작년대는 B.C.1,000년인데, 지금부터 약 3,000년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아폴로11호가 달에 갔다 올 때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으니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이나 믿는 종교이지, 우리 같은 지식인이, 대학생이 교회에 다니?"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3천년 전에 욥은 이미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달아놓았다고 하여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적 표현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현대과학이 사진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으니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요, 영원한 구원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여진다. 무식한 사람만이 믿는 예수가 결코 아니다. 이런 내용을 명백히 써서 '달려가면서도 잃게하라'는 것이 기독교 문서운동의 방향이다.

기독교 문서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운동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한다. 첫째로 문학적 소질이 있어야 한다.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독, 다작, 다사"하라고 한다. 많이 읽어라, 명작이든 다 읽어라. 많이 써봐라, 습작을 많이 하라 많이 생각하라, 깊이 사고하라 등의 그것이다.

둘째로 신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신학을 모르고 교회역사를 모르고는 신문, 잡지, 기관지 하기가 어렵다.

세째로 기술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제적 문제이다. 편집, 도안, 교정 등에 능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독교 문서운동은 잡지를 하든 신문을 하든지 간에 문학적 소질이 있어야 하고 신학적 소양이 있어야 하고 기술의 경험자가 되었다면 완전한 기독교 문서운동자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이 방법론 까지 적용을 시켜서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강연초·문책기자).

송원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짜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 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상사

261 - 1188 · 266 - 9226

대표 오정현 집사
오정수 집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전 1:22-24)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무엇을 전파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 아포스톨릭 프리칭(Apostolic Preaching) 곧 사도적 케리그마입니다.

본문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적 케리그마는 이적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적주의를 반대하는 어조로 말한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제일로, 밤에도 이적을 찾고 낮에도 이적을 찾고 언제든지 무슨 활동에나 이적을 찾는 이적주의는 사도적 케리그마가 아닙니다.

여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이적이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구한다는 말이 사도적 케리그마에 맞지 않습니다. ‘아이테오’인데 이 말은 요구한다(Request) 혹은 찾는다(Searching)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이 현재사로 되었으니만큼 상습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한두번 어쩌다가 어느 경우에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적주의입니다.

사도적 케리그마



박 윤 선 목사

(협동신학원장)

예수님께서 5병 2어로 5천명이상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습니다. 큰 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떡을 얻어먹고 그 뒤에 예수님을 또 따라갔습니다. 또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적을 행해주십시오, 표적을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읍니다.

이적을 찾는 사람들, 이적을 상습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한번 이적을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번에도 만족하지 않고 세번에도 만족하지 않고 언제까지 만족하지 않고 그 수준에 늘 머물러요. 이렇게 이적주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보다는 자기와 그 이적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적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 그 한가지 일을 보고라도 얼른 하나님을 가서 붙잡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주의를 가지는 분들은 이적을 상측화하려고 합니다. 이적을 상측화 하면 이적이 이적이 못되는 것입니다. 드물 ‘이’ 자, 자취 ‘적’ 자 이적은 드물기 때문에 이적이 이적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적이 흔히 나타난다면, 그저 어려움을 당할 때 찾으면 찾는대로 이적이 나타난다면 이는 상측화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연 법칙의 원리를 타고 나타나는 법칙이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어떤 법에 사로 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같은 케이스인데도 하나님이 안하시려면 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에 대해 우리가 경외심을 품어야 되겠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적을 찾는, 그러한 법에 소속시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경외하는 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욕을 본위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성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주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믿음이 어릴 때 평양에 오셨던 일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적을 그리워 해 가지고 한번 대동강변에 나가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여러고 성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한번 믿고 건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발을 내디뎠던 일이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와 성의에 따라서 현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적주의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신앙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적 신앙이 제일 위가 아닙니다. 첫째로 꼽아줄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도하려 가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일에 동참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저렇게 된 것을 보니 그가 구원 받은 은혜를 상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그 이적은 물론 하나님에게서 온 이적이 아니고 인간보다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보면 거기에 칭찬하는 신앙들이 이적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히 써놓은 그 신앙의 케이스들이 이적 신앙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만 대부분이 이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벨은 제물을 옳게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판정이 난 것입

니다. 노아는 하루 이틀에 이적을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대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자기의 여덟 식구 외에는 회개하는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래 오래 참으면서 또 기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노라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때 내일 아침에는 이상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고 창세기 12장 4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먼 길을 가다가 하란에 정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몇 해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여기서 앞으로 400년을 기다려야만 네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낙심될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한번 에스 했으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뻐하는 일이고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과 직결되는 일이고 주님을 따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있는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죠.

바울이 자기에게 쏘는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치워 주기를 위하여 세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린도 후서 12장 9 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기를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약할 때에 강하리라. 약하다는 것은 이적을 언제든지 행하고 이적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니고 누구 하나 걸핏하면 아예 이적을 행하고 전담시키고 그 이적으로 일을 해 나갔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려울 때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였어요.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창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의인이 애매하게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니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당장 표적으로 다스리거나 당장 권능을 발동하신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한 연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 때에 강하리라. 이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이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처세에 있어서는 약한 처세. 권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강한 처세가 아니고 돌로 때리면 돌로 맞고 욕하면 욕을 먹고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아무리 원망스러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원망을 품지 않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처세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악독이라 그 말씀이지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약한 처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난, 다음에 권능”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수난이 있기 전에 아예 미리 방비하고, 수난이 있기 전에 아예 미리 내 쏘고, 수난이 있기 전에 아예 선제 공세로 때려 부수고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먼저 돌탕에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돌로 때릴 때

에 그는 죽었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졌는데 그 때에 일어났어요. 돌에 맞기 전에 미리 방비하고, 돌에 맞기 전에 아예 무슨 수를 써서 아예 능력을 한번 써서 공중이 뒤로 자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이러한 처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처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처세는 약할 적에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났을 적에 번번히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적에 잘 수종하는 수종자지마는 “가만 뒤라 데리고 오

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 해야겠다, 기도로 고쳐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가 위병이 났을 때에 오라 한번 안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위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와같이 말씀한 것이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적 케리그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적 케리그마는 이적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케리그마는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사도적 케리그마가 무언인가 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 나갑시다. 확신없이 이러덤편하고 저리 덤편다가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나중에는 심판 받게 됩니다. 사도적 케리그마는 이적주의는 아닙니다. 후에 기회 있는대로 사도적 케리그마는 철학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바로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필라소픽, 필로는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입니다. 애지학입니다. 종회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합니다

●강 의

김희보목사

- 아모스서 (90분용 - 11개) - 11,000원
- 호세아서 (60분용 - 9개) - 7,000원

- 로마서 (60분용 - 7개) - 4,900원
- 요한계시록 (90분용 - 12개) - 12,000원

이종윤목사

- 친구약개설 (90분용 - 6개) - 6,000원
- 창세기 (90분용 - 8개) - 8,000원

※ 2학기 강의는 매일 90분용 1개에 녹음됨.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충현의 강단을 통해 말씀되어지는 설교 및 강해와 찬송등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하고 있는 종류는

- ① 김창원 목사의 주일설교 및 수요강해
- ② 협동목사의 주일설교
- ③ 복목사의 주일저녁설교 및 수요설교
- ④ 성가대의 찬송가 선곡 (1) (2)집 및 영아·유치·초등부 찬송

●설 교

90분용 - 예배전제 - 1,000원
60분용 - 설교만 - 700원

●찬 송(금년 8월에 새로 녹음된 것임)

새찬송가 제 1집 (독창)
어린이 찬송가 제 1집 - 초등부

● 문의 및 신청

월간충현편집실 전화 : 250 - 3407, 3408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출판국**
장 로 회



김 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⑥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세가지 기도제목은 이미 공부했고 사람에게 대한 네가지 기도제목 가운데 두번째 제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롬 3:10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 뿐이고 황송한데」

사람들이 평생에 행한 일, 양심의 눈을 뜨고 살펴본다면 부끄러운 것 밖에 없는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죄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 범하고 남이 모르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양심에 고통이 옵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내 죄값이로구나 하고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범한 죄를 숨겨두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부끄러움이 오면 몸에 괴로움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따라오면 멸망의 함정에 떨어집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 육신과 영혼이 아울러 죽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성격입니다.

둘째로 죄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몰라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인줄 몰라서 믿지 아니할 때 죄를 범했습니다. 몰라서 범한 죄, 이것을 성경은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인줄 알

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인줄 알면서도 끊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법을 놓고서 많은 연구를 한 후에 걸리지 않도록 짝씩 피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으나 「범한 죄를 숨겨버리는 죄」가 또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숨겨보려고, 왜? 숨기지 않고 드러나면 망신 당하겠으니까, 앞길에 끊어지겠으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로 피난처를 삼고 얼마 있다가는 아무개가 이 짓을 했다고 남에게 뒤집어 씁니다. 전가,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죄를 남에게 의뢰 버리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땅위에 사는 동안 양심의 지옥이고 세상을 떠나면 영육간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죄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거운 죄점을 누가 어떻게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점을 벗고 죄악의 성질이 없어지고 선만을 행하는 실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 피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 한길 뿐입니다. 인간의 무엇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이 무

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나 내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허락이 내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함받는 시간이 마음에 천국입니다. 평안이 옵니다. 죄 때문에 평안이 도망갔는데 죄 용서받는 시간에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사람끼리 죄를 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와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 너무나 무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사오니 그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군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내 친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효녀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내놓고 용서를 비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취급을 받아 천국시민의 은총으로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과 상관없는 영원한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주의 국가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1. 국가의 기원

칼빈주의에서는 국가의 기원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찾는다. 즉 인간이 죄악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질서를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와 관현을 인정하시어 타락한 인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칼빈주의 국가관이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인간의 죄를 제재하여 사회가 공적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공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므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선교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연적 결합이 아니다. 가정은 타락 이전 무죄 상태에서도 존재한 것이지만 국가는 죄 때문에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국가나 정부가 필요한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간의 죄악을 임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정벌하는 동시에 치료를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은 국가 정치에 있어서도 성경을 표준으로 생각한다. 칼빈주의자가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생

각하는 것은 자연과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에서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므로 진리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최후 최고의 판결을 주는 책이며 특수한 의미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정치학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사상 체제는 그 이론의 근거나 국가의 모든 해결의 원리를 성경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대중의 의견이나 개인의 정의감이나 혹은 인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신앙의 법칙에서 정치 체제의 기초와 원리를 발견한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인간의 죄악을 다스리기 위하여는 국가가 권위를 가져야 함을 말한다.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죄악과 악점 때문에 발생하는 죄악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류 공동 사회의 질서와 복지를 유지 발달케 한다는 것이다.

2. 국가의 목적

이와 같이 칼빈주의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세워진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범죄한 인간 사회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제도를 세우고 그 국가에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가지 국가를 세

운 목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행복을 기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는 복음으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사회를 복음화하는 종교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가의 권위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초는 직접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을 상실한 잘못된 국가, 혹은 정부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기초는 범죄한 인간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완전한 사회, 즉 천국을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적 방법에만 의한 자연적인 발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 인류가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만 실현될 것이며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세상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의 영역이라 하겠다.

칼빈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와 천국을 동일시 하는 것을 경고했고 또 국가와 천국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고했다. 다시 말해 세상 정부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와는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든지 양자가 서로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는 그 사회적 임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구일 뿐이다.

3. 국가의 권한과 권위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적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정부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국민을 위하여 실현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정부의 권한이란 국민의 의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 권한을 국민의 죄를 재재하고 시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존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수행하는데는 공정한 정치와 행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당한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국가에 맡긴 것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부한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권세를 높일 때에는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 맡겨진 것 이상의 세력을 주장할 때 정부는 전제자들이 된다. 주어진 권세 안에서 국가는 칼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롬 13장 참조)

다음은 국가 통치자나 관헌의 권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①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존속된다.

②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이 통치자나 관헌에게 양도해 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을 뿐이다.

③ 정부의 권위는 말은 일에만 제한된다.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정, 교회, 학교 등 각 단체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역의 주권이 있으므로 국가의 권위가 침범할 수 없고 오직 각자의 가진 영역을 넘어서 타에게 해를 끼칠때에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간섭을 할 따름이다.

④ 통치자나 관헌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되었으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정치, 행정을 해야 한다. 즉 국민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⑤ 국민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양심을 위하여 통치자나 관헌에게 적당한 존경과 복종을 해야 한다.

4. 국민의 자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 할 특권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민 개인이나 교회, 교육기관, 산업기관, 자선기관 등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자들로부터 국가의 안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이 각자의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유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모든 조건과 관제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가진 각자의 특수 분야에 절대자가 아닌 만큼 간섭해서는 안된다.

③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복리를 위해서 국민이 자기 힘으로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④ 국가는 국민의 정신적 자유를 추진시켜야 한다. 즉 사람의 영혼의 자유이다. 이것은 언론자유, 출판자유, 종교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가지는 일이다.

이상의 국민의 특권과 자유는 칼

빈주의자들이 꾸준히 파수해 온 것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는 국민으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5. 교회와 국가

칼빈은 교회와 국가는 각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자체의 권위를 받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보았다.

국가는 루터의 말과 같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국가가 정치나 민생 문제에 권위를 가진다면 교회는 영적문제에 권위를 가진다. 특히 칼빈은 헌법에서 「성직자의 특권」을 빼고 모든 정치 행동 문제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관원에게 복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원들은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처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칼빈은 기독교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입장과 다르다. 그러나 민족복음화를 부르짖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이상적인 생각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모든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위가 독립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교회와 국가는 각각 독자적 권한을 가지면서 법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섭할 수 없는 제도의 영역을 인정했다. 즉 독립된 존재와 법적권을 가진 생활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양심이 최고 지배자이며 교황이나 왕이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이다. 칼빈은 모든 생의 영역을 교회와 국가 권위에서 자유케하여 신자의 자유 교리를 말하고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있는 몇몇한 삶을 갖게 한 것이다.

복음과 선교

=성경적 전도론=



조영길 목사

〈제 4 지구 실패〉

서론 :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리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마 16:26)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대 목표도 결국 "복음전도"라는 대 명제 아래 정하여진 것으로 안다.

① 천국 일꾼 양성 ② 북한 선교 ③ 민족 복음화 ④ 세계 선교, ⑤ 세 성전 건축 등인 바 이같은 목표는 "복음전도"라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다.

이번에 월간 충현지를 통하여 평소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성경적인 전도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크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바른 전도(선교)는 어떠한 것인가? 를 고찰하여 보면서 우리 충현의 성도들과 독자들이 훌륭한 전도자들로 되어지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1. "전도(선교)"란 개념에 대한 이해

(1) 복음서에 나타난 "전도"의 개념

① 케뤼그마토스(Kerugmatos)

고전 1:21-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 12:41-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여니와...(눅 11:32)

달 1:3-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 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케리그마토스(kerugmatos)의 본래의 뜻은 선포하다, 공포하다, 선언하다(proclamation) 선포하다(preaching)의 뜻이다.

② 케뤼소(Kerusso)

마 11:1-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막 1:38-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9,3:14)

눅 4:43-44-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행 10:42-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Kerusso(케뤼소)의 본래의 뜻은 메센저로, 선포하다(Proclaim as a Herald), 발표하다, 널리알리다(publish)는 뜻이다.

③ 유앙겔리조(Euanggelijo)

행 5:42-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행 8:12-"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Euanggelijo(유앙겔리조)의 본뜻은 기쁜 소식을 알리다(to address with, good tidings) 기쁜 소식을 전하며 공고하다(to announce, good t-

idings)는 뜻이다.

(2) 복음서에 나타난 "전파"의 개념

① 케뤼소(Kerusso)

마 3:1-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세례 요한의 경우).

마 4:17-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23)-(예수님 경우)

마 10:7-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27)-(12제자들의 경우)

롬 10:14-"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바울의 경우)

복음서와 서신에서 50여번이나 나온다. 널리알리며(to publish)선포, 선언하다(to proclaim)는 뜻으로 "전도"라는 의미보다는 "선교"라는 의미가 더 있겠다.

(3) 복음서에 나타난 "전하다"란 개념

① 유앙겔리조(Euanggelijo)

눅 2:10-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천사의 경우)

눅 4:18-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이사야의 예언 고전 1:17-오직 복음을 "전도"하려 하심이니...(바울의 경우) 신약 성경에 30여번이나 나온다.

② 카탕겔로(Katangello)

행 4:2-부활하는 도 "전함"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경우)

고전 2:1-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바울의 경우)

신약에 약10번 나온다.

전하여 알리고(to announce) 칭송하며(to laud) 축하한다(to celebrate)는 뜻이다.

1. 복음의 이해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 에게 전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복음이란 무엇인가?

1) 어원적으로:

① 복음(福音)-복된 소리, 복스러운 음성(good news)이다.

② 가스펠(gospel)

선하고 좋은 말(good+spell)
가서 말하라(go+speak)

③ 유앙겔리온(Euangelion)-기쁜 소식(glad tidings), 선하고 즐거운 소식(good or joyful news), 중성(中性)명사이다. 복음은 전 세계 인류, 남녀, 노유,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2) 성경적으로:

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롬 1:2-4-"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와 같이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② 복음은 또한 십자가의 도이다.

고전 1:18-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사역 완성을 가리킨다.(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다)

2. 복음의 기원과 출처

한마디로 복음은 신적인 것이며 천래적인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① 하나님의 복음이다(막 1:14, 롬 1:1, 15:16)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막 1:1, 롬 15:19, 살후 1:8)

③ 천국의 복음이다(마 4:23, 9:35)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복음은 없다. 예수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갈 1:7-8, 행 4:12)

3. 복음의 성질이 무엇인가?

① 복음은 진리이다(갈 2:5, 골 1:5)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다(시 31:5)

예수님은 진리시다(요 14:6, 엡 4:21)

성령님은 진리시다(요 16:13, 요일 5:7)

말씀은 진리시다(요 17:17, 시 119:142, 151)

② 복음은 소망이다(골 1:23, 27)

복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시 146:5)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딤후 1:1)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님(롬 8:24)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은 소망이 될 수 없음(딤후 6:17)

③ 복음은 비밀이다

엡 6:19-복음의 "비밀"을 담배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수님은 비밀이시다(골 2:2)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마 11:27)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마 13:11)

감추인 보화(마 13:44)이다.

④ 천국복음이다(마 4:23, 24:13)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있다(마 5:3, 눅 17:21, 빌 3:20)

4. 복음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가?

① 은혜의 복음이다(행 20:24).

은혜란? : 공로 없이 받는 것이다(롬 4:4-5).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엡 2:5, 8). 우리가 기동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행 17:25, 28).

② 구원의 복음이다(엡 1:13 롬 1:16)

구원이란? : 예수님이 구원이란 뜻이다.(마 1:21) 건짐받는다 구조받는다 뜻이다. (딤후 4:18, 골 1:13-14)

구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 가도록 구원 하시리니.

④ 평화와 평안의 복음이다(엡 6:15, 행 10:36, 롬 5:1)

복음이 가는 곳에는 참된 평화와 평안도 간다.

④ 영광의 복음이다(고후 4:4)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법이다.

⑤ 영원한 복음이다(딤후 1:10, 계 14:6)

예수복음은 1~2년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2년전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다. 영원전부터 있었고 영원후까지(예수 재림심판때까지) 있을 것이다. <계속>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김 차 생 장로

(교육위원 · 성경학원원감)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변화속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일성수 문제다.

1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외국 유학갔던 분들의 주일성수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신앙사상은 사라져 버리고, 강단에서 주일성수문제에 대한 설교도 들어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제사까지도 미풍양속이니 지내도 좋다는 때가 되었다.

특히 주일성수 문제는 보수교회마저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출애굽기 20장8-11, 히브리서 4장4-9절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안식일은 주일의 전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무궁한 안식의 표상이다. 박윤선목사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지킬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무궁한 안식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인간은 이와같은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생활에서도 거룩되이 살게된다”라고 하였다.

전 평양장로회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크레인>박사는 “주일이 없는 곳에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적극적인 명령에 기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필요에도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신자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인 것이다. 그

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20장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다. 사람은 분주함으로 또는 쾌락에 젖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안식일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것은 잊을지라도 주일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 원하신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늘의 음성과 내세 영광의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이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날은 주님의 날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과 영혼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거룩히 곧 구별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며 교회가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2. 주일을 거룩히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구별해서 드린다」는 말인데 구약에 830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고, 한정되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16절에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안식일마다 반드시 회당에 가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 제1장2항~5항에 “주일은 중일토록 예배하는 일에 씀이 가하며…… 식물까지도 미리 준비 함으로 공동예배에 구애받지 않도록하고……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의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고…… 개회시부터 일심 단합하여 정한 시간내에 일제히 회집함이 가하고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불가하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더러운 생활이 깨끗해지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상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있는 날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물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 것, 식사를 위해 시장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예배시간에 졸지 않도록 오전 오후에 잠깐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식일을 거룩

히"란 말은 일부분이 아니고 종일 거룩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옛새 동안 전적으로 자기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하루를 지키는데 인식 해서야 될 말인가?

특히 도시교회 교인들은 물론 성가대 그의 직분말은 분들까지도 주일날 예배 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먹고 다방 출입하고 등산, 낚시, 운동구경 영화구경, 유원지 등으로 또는 장사터로 가고있다. 오늘날 도시교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그리하자"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성껏 바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주일 아닌 다른 날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한 자라야 주일을 지킬 자격이 있다.

출애굽기 20장9절에 말씀하시기를 "옛새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일 안식을 지키는 자는 먼저 다른 옛새동안을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일성수의 선행조건이다. 옛새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놀다가 주일에 꼭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옛새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옛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일에 일거리가 밀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힘써 일하는 자가 주일 안식의 참 맛을 알게된다.

대살로니가후서 3장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말은 일을 게을리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1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레위기 23장 31절에도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였다.

장로교정치조례문답 161문에 "주일에 모든 영업하는 일은 휴식하고"라고 했으며 예배모범에도 "모든 육신에 관한 일을 정돈하고 종일 거룩히 안식할찌니"라고 하였다. 일은 축복이다. 그러나 일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한 주일에 하루를 안식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짐승에게 이레중 하루를 쉬게하고 옛새 동안 일을 시킨 결과 더욱 능률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주일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육신 생활에도 해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령의 위안도 주일을 지키므로 얻게되는 것이다. 주일을 존중하지않는 프랑스 파리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또 영국의 정치가 <클래스틴>은 말하기를 "나의 길고 바쁜 일생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용기를 유지시켜준 것은 안식일마다 나의 수고하는 역사를 쉬고 그날을 지킴에 있었다"고 했다. 불명치 과로한 근육은 휴식함으로써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되여지고 휴식한 마음은 좀더 창조적이 될 수 있으며 힘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 직무로 부터 완전히 면하는 것은 가장 큰 안식이고, 또한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휴식은 단조로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게 하는 가장 귀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고<주남선>목사는 "쉬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였다.

5. 주일이 불안의 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가복음 2장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세칙(細則)을 제정하여 고통의 날로 지켰으니 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불안일(不安日)이었다. 그들의 세칙은 5백가지 이상이었는데 몇가지 예를들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것,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어도 좋으나, 만일 사람이 빠지면 하루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것, 옷 만드는 직공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저녁에 바늘을 가지고 출타하지 말것, 그 이유는 집으로 돌아오는 때는 벌써 안식일이 되었을터인데 그 바늘을 안식일에 운반하게 되기 때문이라 했다. 안식일에는 서기관이 글쓰는 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안식일에 벌레에게 물려도 그 벌레를 그대로 내버려 둘것. 만일 그것을 잡으면 사냥쇠에 걸린다고 했다. 이런 세칙들이 24개장에 걸쳐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불안한 날로 쓰는 일에 대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다. 주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버리고 참안식을 거기서 얻는 것 보다는 규칙 때문에 거북스러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주의해야 한다.

6. 주일에는 오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58장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아니하며 사

새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다.

장로교 정치조례문답 161문에 "주일을 지키는 법이 어떠하뇨? 주일에 모든 영입하는 일은 휴식하고 이 날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할찌니 번잡한 유희와 세상 육신에 관한 담화와 사상까지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 날에 죄되는 영업을 정지하고 유희하는 것과 관광다니는 것과 그 익일 소간사를 위하여 출행하는 것과 불신자가 회집하여 유희하는 처소에 내왕하는 것과 세상 신문을 보는 것같은 일에서로 간주하는 자가 많이 있나니 회원중에 만일 아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당회가 권면할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면 책벌함이 가하니라"고 했다.

예배모범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2항에 "위급한 일 외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찌니 세상영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가하니라"고 하였다.

자기를 위해 오락을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며 시장을 보든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신령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7. 주일에 위급한 일은 해야한다.

예배모범 1장2항에 "... 위급한 일 외에는 모든 사무를 폐할 것이니라"고 했다. 위급한 일이란 위태롭고 급한 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나 천재지변에 관한 불가피한 사실을 말한다. 박윤선 목사는 "주일에 부득이한 일은 생명에 관한 급훈사업 외에는 절대로 부득이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크레인>박사가 저술한 「안식일과 인생의 행복」이란 소책자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대가 대전과 고난 중에서도 주일성수 문제에 있어서 각 군대에 특별위원회를 파송하여 조사 보고한 일이 있는데 이 날에 부득이한 일은 특별원들이 특별히 주의한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① 뜻밖의 일 즉 난리중 시급히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와 같은 것이요.

② 증기로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겨울에 방을 계속적으로 덥게 하는 난로에 불을 피우는 일 같은 것이다. 다시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수가 아니더라도 불을 꺼야 되고 적이 갑자기 침범했을 때 정당 방위로 싸워야 하고 사람이 죽어갈 때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8. 주일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

이사야 58장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비처> 목사는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며 들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동안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다.

시편 118:24절에 "이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새찬송가 70장의 가사를 보면,

즐겁게 안식할날 반갑고 맑은날
내맘을 편게하니 즐겁고 기쁜날
이날에 상하인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히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써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와 종치는 소릴세
복음의 밝은빛은 온세상 비취며
또 영생 물줄 흘러 시원케 하시네.

9. 주일은 주의 명령이니 굳게 지켜야 한다.

이사야 56장2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면 "굳이" "굳게"란 말이 세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거듭 굳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심은 신임인격이 전신행해야 축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31장12-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란 말씀이다.

이것으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였다. 우리는 주의 택함을 입은 여호와와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표를 지키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결론

우리 인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전의 욕심이 더 많으면서 주님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가지 꼭 주의해야 할 일은 주일을 범하면서도 이것은 선을 위한 일이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합리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태복음 12장1-13, 사도행전20장7절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과 전도와 심방과 환자 위로등 선하고 거룩된 일에만 열중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특히 느헤미야13장15-21절에 보면 노동행위나 상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7일중 주일을 축복하셨고, 즉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의 축복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다. 이 축복은 안식의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을 존귀한 날로 알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 높히들어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리고 땅에서도 기업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기업도 받게 될 것이다.

고 홍종만목사를 애도하며

홍
치
모
교
수

〈충신대학〉

진실한 신앙 인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 홍종만 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무어라고 아뢰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신록이 한창 우거지는 5월 하늘은 한결같이 맑고 태양은 뜨겁게 온 누리에 쏘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도 같이 가서야 할 홍종만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으니 아! 슬프도소이다 선배님 홍종만 목사님이시여——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계시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성직, 성훈 그리고 귀여운 따님 인숙, 회숙, 미라, 경숙을 옆에 두고 간 아버지로서 차마 눈을 감을 수는 없었던 그 비정함이란 어이 말로서 다 형용할 수 있겠읍니까.

제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도 미소로 말하시던 그 모습조차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젓한 자세를 형크리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셨고 도리어 자녀들을 위로하신 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띄운 채 유유히 떠나가셨단 말씀읍니까.

둘이켜 회고해 보건대 목사님과 저는 같은 50대의 연령으로서 잠시나마 고락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오는 동안 전쟁을 두번이나 겪어야만 했던 역사의 한 소용돌이를 통과해 왔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38선을 넘지 않으면 안되었던 고난의 세대였읍니다. 우리는 꿈과 낭만 보다는 기아와 공포 속에서 죽음을 수없이 넘어야 했던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죽음의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읍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읍니다. 이제 이 역경을 딛고 후배를 위해서 한창 일할 나이에 선배 홍종만 목사님은 열매를 미처 거

두지 못한 채 가시니 참으로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안수를 받으시고 충현교회의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농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976년 홍종만 목사님을 홍릉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50세가 다 되어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무리이긴 했지만 그 임무를 마다않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공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만 목사님, 지금 이곳 언덕 위에는 충현교회당이 우뚝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훈련시킬 선교원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신축 공사장 안에는 구름과 같이 모여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마지막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목사님이시여 이곳 보다 더 좋은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옵소서.

이제 의젓하고도 소탈한 모습과 믿음직한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목사님의 진실한 신앙 인격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남기신 신덕과 업적을 길이 되새기면서 이 슬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현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제2, 제3의 홍종만 목사님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원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 과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두신 사모님과 자녀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 뽕뽕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형님 홍종만 목사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길이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목사님을 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주후 1982년 5월 29일

믿음의 동생 홍 치 모 드림



◇ 고 홍종만 목사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의 모습



◇ 하관식 예배에서 축도하는 한영철 목사



◇ 잠지로 출발하는 고 홍종만 목사 유해



◇ 고 홍종만 목사 유가족 일동

어떤 목사 사모의 고백

윤 두 한 장로



머리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현세적 인본주의의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입신양명, 부귀공명의 흐름에 매혹되면 본의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도끼 삼아 체면도 위협도 무릅쓰고 허구의 성공에 초조하여 좌충우돌하다가 마침내 파멸의 고배를 마신다. 이는 군자의 취할 도리가 아니며 더구나 기독교신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일조차 되지 못한다.

1. 어떤 가정의 경우

여기에 지나간 옛날 어떤 목사 사모의 고백을 더듬어 보려 한다. 1965년의 일인데 필자는 그 당시 천호지구 구역장의 일을 맡아 보던 중 워커힐 동편 한강 기슭에 자리잡은 수세대가 살고있는 어떤 양옥집 2층에 삼사칸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는 우리 교인의 가정이 있었다. 사모님인 할머니의 남편되시는 목사님은 벌써 10여년 전에 별세하셨다고 한다.

목사님의 성은 김씨라고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사모님 할머니는 80세 가량으로 백발 노인으로서 기력이 쇠진하여 정신은 맑았으나 외출을 잘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고향은 이북이나 해방전에 월남하였으며 남편은 중진 목사님이며 사모님도 젊을 때 전도사로 헌신했다. 성경은 물론이고 한문에 조예가 깊었다. 아들은 우리 교회 신진 집사님 이었고 내외가 모두 직장에 다니며 자녀 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다닌다.

2. 십자가를 짐

남편인 목사님은 진실하고 돈독한 중진 목사님으로서 명예와 공로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이 오직 정의와 말씀으로 준행하여 어렵고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사양치않고 감행하여 순교자의 자세로 용약 매진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도 도회지를 떨어져 변두리나 시골에 소재한 교회는 재정이

말이 아니고 신앙 역시 낙약했다고 한다.

이런 교회에서 시무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교역자로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오늘날도 상황은 이와 거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취약한 교회의 시무자들은 첫째 생활이 문제가 되고, 둘째는 자녀교육이 문제가 되며, 세째는 문화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곳에 교역자들이 시무할 것을 노회가 종용하나 누구 하나 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와같이 난감한 일로 노회가 고심하고 있노라면 말경에는 이 김목사님이 현 시무 위치가 좋더라도 양해를 얻어 물러나고 자원해서 그 교회에 부임 하면서 “시무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가야지. 많은 양떼를 굵겨두고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곤 했다고 한다.

그와같은 교회에 남부여대하고 가놓고 보면 정말 살아갈 길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날이면 날마다 교회 일에 몰두하시고 사모님은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데 아이들 통학길이 멀고 또 집이래야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거우나 땀 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모님이 산에 가서 솔잎 떨어진 것, 솔껍이 등을 주워다가 방을 덥게 하면 이번에는 또 양식 걱정을 해야 하는데 쌀, 보리, 조 할것없이 누구의 집이라도 가서 구해와야만 했다고 한다.

손은 얼마시피하여 거칠고 피가 맺혀서 붙게 물들고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참고 지냈다 한다. 또한 참지않을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시무하기 때문이다.

여러 세월이 그렇게 덧없이 지나갔다.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이 계신 곳을 처음으로 찾아갔다. 병세가 위독해서 전날 따님네 집에서 다시 옮겨 오셨다고 했다. 정신이 몽롱하였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같았다. 참으로 유감이었다. 정신이 있을 때 한번 만나보지 못했음을 한탄하였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같고 위문객이 쇄도하여 물러나고 말았는데 이것이 이분과 지상에서의 마지막 해후였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 명성이 높지 못했는지는 모르나 천국에서는 천사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지상의 고생을 잊으리라.

필자는 과거 순교하신 여러분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 보았다. 이 목사님 내외분의 일도 다 순교로 본다. 꼭 원수에게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 의롭게 가면 이 또한 순교가 아니겠는가?

필자는 이 목사님 내외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날 지도자연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을 좀 해놓고 자기가 아니면 안되는 것같이 뽐내고 자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드러내니 교만이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김목사님 내외분의 믿음은 진실, 희생, 인내, 겸손, 침묵 등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다. 구원은 결코 호화로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꾸밈없이 사실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직하고 무력한 적은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3. 인본주의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먼저 가신 목사님은 물론 상면하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을 위시하여 사모님을 보나 또 아들 집사님을 볼 때 그분들은 범상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맞겨루어 경쟁을 했다고 하면 이들도 큰 재물, 큰 학벌을 쟁취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자질, 용기, 인내심을 이 세상 출세에 소모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청춘을 불사르고 용지를 오직 주님의 일에 바쳐서 십자가의 피를 빛나게 하였다.

4. 나의 감회

그들 두분은 이미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으며 또 이어 자손들도 그리 되리라 생각한다. 이들의 업적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할머니 사모님은 지극히 겸손하시며 이러한 사연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하였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경청하였다.

1966년인가 한강의 대홍수로 광장교 중간 지점의 슬라브가 한칸인가 내려앉아 통행이 두절된 일이 있었다. 며칠 후에 궁금하여 광나루에 그 사모님 댁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홍수로 수위가 계속 올라 강변의 집들은 2층까지 침수 했으며, 다행히 사모님은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직전에 피하여 보문동 근처의 따님네 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정말 다행한 일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 6월의 시 =

바울의 자화상



김 연 이 전도사

〈제 6 지구 심방〉

칼끝에서 뛰노는 요정이었어라
칼끝에서 튀기는 피를 먹고 살았네

불꽃 위에 춤추는 불나비었어라
화염 속에 사그라진 혼을 먹고 살았네

할라카의 쇠사슬에 무고한 자 묶였고
유다이모스 독개스에 기독교인이 숨졌네

바리새 목거리를 내가 사랑했구나
가말리엘 귀고리를 내 영혼이 아꼈구나

마광된 칼날의 번쩍임 앞에
짚시처럼 홀날리는 광대였어라

※ 갈 1:13-14의 바울의 자서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뿔뿔하고 잔해하던 모습을 그림.

잔해(포르테인)···불과 칼로서 한 도시를 진멸하는 모습.

할라카···율법 주위에 울타리와 같이 둘러친 613항목의 유전들.

유다이모스···“유대교”의 헬라어 원어. 유대민족 중심의 사상체계 바리새 목거리와 가말리엘 귀고리는 율법을 표현



해외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홍콩-홍콩만 선교사

지난 5월27일 소천되심. 남은 유가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① 고 홍콩만 선교사님 유가족과 장래의 형통

② 한인교회 및 한화 선교 협력회로 수고하시는 이만렬 선교사님 가족

③ 마카오 개척선교하시는 열영택 목사님

● 인도네시아-서만수선교사

미주 한인선교대회 참석 및 당회장 목사님 수행을 위해 귀국하셨다가 당회장님 모시고 5월25일 함께 출국하심.

1. 화산 폭발 이재민 구조

4월8일 자카르타 동남부 300킬로미터 지점의 갈롱궁 화산이 폭발하여 이재민 63,000명을 내고 두개의 강을 범람시키고 분화구로부터 날아온 바윗덩이가 5킬로미터 떨어진 교량을 절단시킴. 5월6, 7일에는 분화구의 먼지와 모래가 100킬로미터 지점의 반둥시까지 1센치미터 두께로 덮음. 낮에도 밤과같이 캄캄하여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자동차는 불을 켜고야 다님. 이재민을 집단이주시키고 있는데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인교회에서 거류민회와 협력하여 라면3,000명분 의류, 식기, 학용품 등 1,866점을 수집 인도네시아 중앙 적십자사에 전달함.

2. 총선거 끝남

긴장과 불안속의 총선거는 북부 스마트라 아체지역외에서는 집권당인 적능구룹이 압승한 가운데 큰사고없이 무사히 끝났으나 회교연합당에선 아직도 적지않은 이야기가 계속중임.

3. 할렐루야회관 대지 물색중

4. 오지 선교 현황

장년21명, 어린이 17명 결신함. 수디모로 개척지와 워노꺼르도 개척지는 교회당을 신축중입니다.

[기도 제목]

① 서만수선교사님 미주 한인선교대회 참석 및 당회장님 수행과 친척방문

② 인도네시아에 홀로 남아 수고하시는 정소라 사모님 건강과 사역 형통

③ 갈롱궁 화산 이재민과 인도네시아선교화장 및 오지선교 부흥 발전

④ 할렐루야회관 대지물색 및 건축진행의 순조로움과 자금조달

● 애굽-이준교 선교사

애굽은 지금 더운 여름철이 되어서 며칠전에는 42도까지 올라갔었다고.

1. 여권 갱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여권을 1987년 4월25일 환으로 연장 갱신함.

2. 애굽목사 하기수양회 강사

애굽 복음주의교회 목사 하기수양회가 8월6일부터 13일까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리는데 4월28일 및 5월17일 애굽 성서공회 이스타화누스목사 방문시 주강사 및 특강강사 청원을 받고 협의하여 주강사로는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으로 결정하고 신성종 목사님을 천거하여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음.

3. 한인교회 소식

5월5일에는 카이로 총영사관 및 카이로 한인학교 주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코 5월 9, 14일에는 이스마일리아에서 한인교회 아육회를 가짐.

4. 공사 현장예배 소식

동산토건 현장예배는 은혜중 계속되고 있으며 5월7, 8일에는 홍해변 대림산업 스에즈현장을 방문코 직현 및 기능공들을 위로 격려코 직장예배 인도 및 현황을 살펴봄.

5. 애굽 선교 소식

쇼브라 엘 노즈하교회 및 델 엘 말라테 교회 주일저녁예배에 참석코 한국교회 소개,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사무엘 요셉교수의 방문받고 애굽선교에 관해 대답을 나눔.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

② 카이로 한인교회와 현장예배

③ 애굽 목사 하기수양회 및 주강사되신 당회장님과 특강 신성종

목사님

④ 여권갱신 감사 및 애급선교확장

● 칠레—유재일 선교사

4월 8일 칠레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한인교회 62세대의 심방을 마치고 교회건축 설계를 확정하였는데 예산은 50만달러로 추정됩니다. 3월부터는 통일교가 원주민 관광 및 포교활동을 위해 상륙했음.

[기도 제목]

① 한인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이단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심.

② 교회건축 순조로운 진행 위해 물질과 기도의 후원.

③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칠레 선교의 확장 및 발전.

● 호주—김태현 선교사

1. 시드니 여행

외향선교활동과 한인교회 형편 살핌

2. 중태의 선원간호

덕스타호의 선원 신현성씨 뇌일혈로 뇌수술받고 입원중 보호자 역할함. 언어, 음식, 각종 업무연락등

3. 성찬 및 세례식 거행

4. 중공선원들 접촉전도

5. 국제회의 참석차 호주에 항상 전 장로 내외분 면담.

[기도 제목]

1. 한인교회의 부흥과 안정

2. 외향선원 선교통한 복음확장과 영혼구원의 열매 풍성하도록.

3. 사모님의 건강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장래 계획.

● 일본—유병세평신도 선교사

연휴를 맞이하여 북해도 동단의

로 관광 겸 전도여행을 떠나 후배·치료받은 교포 심방 및 그곳 일대 외진 곳에서 축호전도를 100여회 실시. 예배 및 설교, 부인성경반, 성도의 교세 은혜가운데 진행중이며 성도의 위로편지 감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권능.

② 다른 복음에 물들지않고 전도의 열매 보존되도록.

③ 병원진료환자의 영육간의 치료와 구원 및 양육.

④ 일본 선교 확장위해 많은 성도들이 동참토록.

●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2주간은 미국인 녹음 전문기사 태드·웬즈씨와 선교용 카세트 녹음 및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보내고 10일간 카갈에 여행떠나는데 눈때문에 비행기로 내륙에 들어갔다가 차타고 다시 나와야 함. 선명회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게 되어 의사결정 책임을 지고있음.

[기도 제목]

① 전도용 카세트와 프로그램 통해 농촌 복음화 열매 풍성.

② 지역사회 개발계획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동역자 많이 나타나도록.

③ 남아계실 사모님과 가족위해.

● 서독—육호기 선교사

비스바덴 교회는 어린이 및 부모 주일을 맞이하여 견학과 위로회를 거행하고 5월 1일에는 로렐라이에서 마인츠 유학생(특히 신입생) 전체를 초청 대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함. 뷔츠부르크교회와 함께 헤드폰 동시 통역으로 독일인 및 미국인들과 함께 예배보고 가정구원(주로 남편-외국인)을 특별기도의 제목으로 정하고 힘쓰고 있음. 독

일인을 위한 선교 정책을 구상하고 있음.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형통.

② 외국인 남편등 가족구원과 독일 선교의 확장.

● 아르헨—백성룡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전쟁상태에 있는 현지에서 선교사님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

② 한인교회의 안정과 발전 및 부흥.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정치 경제의 불안정속에도 확고한 한인교회의 안정과 부흥.

② 선교사님 가족건강 및 자녀교육.

③ 이민교포의 성공적 정착 및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발전.

● 서독—박용삼평신도 선교사

[기도 목적]

① 박사학위논문의 최종통과.

② 선교사역위한 준비와 복음사역.

③ 선교사님 가족 건강.

● 본부 소식

1. 김 성환 선교사님은 최초로 가톨릭국인 벨기에에 선교사로서 미자받고 6월 3일 가족과 함께 출국 하였고 6월 4일 안착 전화주심. 할렐루야!

2. 총회과송 선교사인 리비아의 정운진목사 선교보고 및 문안편지 주심.

3. 안익태집사 자제분 안명수씨 외에 사우디에 계시는 성도 윤금택 씨등 월간충현 및 설교테이프 감사 편지 및 현지소식 보고 편지 답지.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예배

—5월22일 세종문화회관서 성대히 드러—

한국과 미국의 교회지도자, 정부인사등 4천여명이 참석한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5월 22일 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히 드러졌다.

박치순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미국측의 「킵스」군목과 한국측의 민영환목사가 1882년 5월 22일 역사적인 수교를 통해 신앙의 동지가 되도록 양국을 결속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1백30명으로 구성된 연세음대 합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미국 NCC회장인 암스트롱감독은 「한미우호는 제물포에서 부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백년전 친선과 통상을 위한 조약에 서명한후 양국정부는 여러번 갈리고 있으나 정치와 정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사이의 우정은 더 두터워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개신교의 1백년 역사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친한 사람들과 함께 가졌던 일치감, 생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관계되는 애국심이 발전된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작용하였다」고 말했다.

백낙준박사는 기념사에서 「한미수교 1백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양국간에 가장 깊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여온 관계는 한국 개신교의 전래와 성장과 활동이라고」 말한후 「한국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성을 바친 역대 선교사들의 공덕을 높이 찬양하고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규호문화부장관과 주한 미 「워키」대사가 축사를, 김용식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한석지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한미양국의 국가가 합창되어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신개교 81주년 행사

—기념예배 및 강연으로 축하—

총신대학(학장·정성구박사)은 개교 81주년을 맞아 지난 5월20일~27일까지 총신축전을 열고 개교81주년을 기념했다. 20일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기념행사에 들어간 총신대학은 24일 개회예배, 25일 오전 10시 동대학 대강당에서 개교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념예배는 유성덕교수의 사회, 홍체모교수의 기도, 어준덕교수의 디후1장3~14절 성경봉독후 정성구학장의 「신앙의 정동성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설교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장로연합회 정총(定總)

—새회장에 박상채長老—

전국장로연합회 제12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1시 전북 정읍성광교회당에서 개최되어 새회장에 박상채장로(진서)를 선임하는 한편, 총회회관 건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상채, 부회장 김무옥, 서해룡, 채문기, 송러섬, 박영철, 신흥균, 총무 홍광, 서기 이정현, 회계 송민섭.

11월에 청장년복음화대회개최

—韓基保靑協총회, 회장 김진호 長老—

한국보수교단기독교청장년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29일 오후2시10분 서울 대학문화관 강당에서 개최되어 새회장에 예장 고신측 소속 김진호장로를 선임하는 한편 오는 11월에 청장년복음화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3개 교단에서 65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진호, 부회장 류성고, 김정경, 정철욱, 김우섭, 문석진, 조정연, 구재석, 이계석, 구성모, 양해권.

사무총장 손경수, 총무국장 장금철, 사무국장 우영식, 재무국장 김영숙, 감사 김선택, 박종길, 이무웅, 강진문, 오승준.

“성경반포 매년 늘어”

—성서공회 57회 정기총회—

한국성서공회는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제57회 정기총회에서 6개월동안 총1천5백65만6백16부의 성경을 국내에 반포했음이 드러났다.

16인의 성서위원들이 모인 동 총회에서는 박치순목사 사회로 진행, 김주병, 김호영총무로 부터 사업보고를 들었다.

김총무는 「앞으로 모금사업의 제점도와 개선을 계속할 것은 물론, 공회운영의 개선, 성서정가의 적정선 유지, 저렴한 성서제작을 위한 연구 등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출처]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이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세우는 이
면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5월의 새 교우

● 1 지구

쌍문 1구역 이선웅
쌍문 2구역 양경수
노들 1구역 노미순
광희 1구역 양인숙
월계 1구역 박연화
잠위 2구역 이하자
월곡 2구역 강 호
상계 1구역 한진후
미아 3구역 이정은

● 2 지구

길동 구역 윤성일
군자 구역 장운영
명일 구역 서병길
종곡 4구역 김인순
구의 3구역 최제희
전동 구역 오정남
전동 구역 김경희
이문 구역 송미성
구리 구역 유순덕
군자 구역 원용정
면목 3구역 한미수
목동 2구역 이종재
하왕 구역 이유복
마장 구역 조동준
홍익 구역 양영희
강동 구역 안덕선
면목 2, 3구역 김재철
종곡 1구역 박순덕
황학 구역 남옥녀
목동 2구역 공정화

● 3 지구

쌍림 3구역 조남민
장충 5구역 유상숙
화양 2구역 최편순

신당 5구역 신금순
정구 구역 김연숙
약수 1구역 고경중
문화 구역 황영숙
잠실 1, 2구역 박우실
약수 2구역 한선영
문화 구역 신형록
쌍림 1구역 이목수
신당 4구역 신형록

● 4 지구

선정 2구역 전관식
논현 2구역 이용현
성남 1구역 배철수
강남 구역 심상복
논현 4구역 김운섭
대지 구역 이현욱
금호 2구역 김수남

● 5 지구

신림 1구역 권영선
서초 구역 정운규
팔동 7구역 김인호
팔동 10구역 김종민
신림 2구역 강재원
주공 3구역 홍건금

● 6 지구

역곡 구역 안정옥
문래 구역 김영자
동교 구역 전원순
신정 구역 박영숙
용문 구역 박경순
인현 1구역 유해성
부전 구역 박종환

● 7 지구

홍제 1구역 정정옥

동송 구역 오세경
송인 1구역 주소영
송인 1구역 박정자
연지 구역 김옥산
오창 구역 주영실
돌지 2구역 서상숙
충정 구역 이진실

충정 구역 석문철
불광 구역 최영란
홍제 2구역 이소영
동건 구역 김은숙
불광 구역 이복순
율암 1구역 이영숙

결 혼

- 임승빈군과 김금매양(이재용권사
손녀) 3일
- 이을우군(산교부교사)과 김귀자양
(성수구역) 5일
- 김무영군과 이은경양(이춘만집사
김정순전도사 딸) 5일
- 정영덕군(정인옥 유감순권사 아
들)과 김희숙양(제3성가대원) 5일

- 최무진군(최대원 남수현집사 아
들)과 이성희양(망원구역) 6일
- 송군호군(고등부 성가지휘)과 고
소정양(고철훈 서정수권찰 딸) 8일
- 전한백군(후암구역)과 한현숙양
(한관수 김정자권찰 딸) 11일
- 이형근군과 서인순양(방배구역 장
갑덕 딸) 15일
- 조세영군(조현명장로 양정백권사
아들)과 양혜영양 19일
- 김종춘군(삼성구역)과 박춘자양
(개나리구역) 20일
- 이정운군(현대구역)과 장정희양
(막우순권사 딸) 20일
- 문성태군과 엄의용양(주교교사)
29일

별 세

- 홍종만목사(홍릉선교사) 27일

이 민

- 김신덕(대치구역)
- 임마철(성수 1구역)
- 윤희순(역촌 2구역)
- 박상미(광장구역) 도독
- 이정숙(을지 3구역) 도미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충현은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교
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평소 간직하고 있던 나만의 이야기들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시, 수필, 간증, 콩트, 제언, 논단 그리고 미
담가화 등 어떠한 내용의 글이라도 신앙적인 것
이라면 다 좋습니다.

원고마감 : 매달 15일까지

길 이 : 200자 원고지 15매정도

(시는 제한없음)

보낼 곳 : 월간 충현 편집실

월간 충 현

교회소식



김창인 목사 출국

— 해외순회 전도여행차 —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牧사는 해외선교지 순방및 집회 인도차 지난 달 25일 출국했다. 이번 여행에는 백인민장로, 이현실권사 당회장 목사 사모 등이 동행했는데 남북미주와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 오는 8월 20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성례식 일자 변경

당회는 본교회 성례식을 제 2차 주일로 앞당겨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학습문답, 세례문답, 입

교, 유아세례문답 등은 오는 7월 8일-9일 실시하며 성찬식은 7월 11일 거행하기로 했다.

벨지움에 선교사 파송

— 김성완 목사 일가족 출국 —

김성완 선교사가 지난 5월 2일 임지인 부위셀로 출발했다. 부위셀 한인교회에서 시무하게 될 '김목사'는 부위셀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주일예배, 성경공부, 지역사회 및 가정을 위한 기도회 등에 주력하면서 주일학교 육성과 한글학교 운영 및 선교사지원자의 기숙사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먼저 파송된 선교사들은 물론 대공산권 선교단체들과도 협력하여 유럽의 복음화에 주력하게 된다.

위하여 기도해 주실 제목은 ①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채워 주시기를 ② 모든 불가능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주시기를 ③ 언어훈련에 지혜주시기를 ④ 가정을 지켜주소서 (생활및 언어적응, 자녀교육과 건강) 등이다.

피택장으로 특강개최

지난 4월 25일 대예배시 투표에 의하여 피택된 장로를 위한 특별강의를 오는 7월 초순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특강내용은 목회서신, 직분론을 주로 하며 앞으로 장로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임현덕장로 일시귀국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8년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임현덕장로가 지난 6월 9일 귀국 이번엔 세 번째로 모국과 모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성도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시카고에서 상업업을 하고 있는 임장로는 약 1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다.

□ 인사이동 □

1. 교육위원회

① 임명
유치부 김인애(여) 정교사

1982년 주교각부 계절학교(여름) 실시계획(개요)

충현교회 교육위원회

구분	무별	어새부	영약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선교부	선교부	계
회수	15	15	29	29	29	20	20	13	12	5	7	4	4		
주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고마우신 성령님	그리스도 의 증인 이 되자	은혜의 길은 바다 로 가자	기쁜 신앙 생활훈련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생각하 하라	여호와를 앙양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성장하는 생활을 하자	민족복음 화와 세 계선교에 앞장서자		
주제성구	딤후 3:14-15	고전 13:4	시 107:1	요 11:25-26	엡 15:18	행 1:8	눅 5:4	딤후 4:7	요일 4:11	시 119:105	사 40:31	엡 4:13	행 1:8		
주제찬송	222	사랑은 자랑은	하나님 고마워요	110	201	543	430	290	634	626	324	547	550		
기간	1982 7.26-29	1982 8.17-18	1982 8.9-12	1982 7.26-29	1982 7.26-29	1982 7.26-29	1982 8.2-5	1982 7.21-24	1982 7.14-17	1982 8.12-13	1982 8.23-24	1982 7.29-31	1982 8.2-5		
장소	어새부실 청년부실	영아부실 유년부실	유치 영아, 유년부실	본당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충현 기도원	유년부실	충현 기도원		
참가예정인원	학생 100	450	300	450	450	320	250	150	242	250	200	76	180	3,348	
교사	30	40	60	70	70	35	30	7	6	33	28	27	13	469	
내무 감사	김양래 이진희	오치용 최소영	조준상 정연희	김연이 안석렬	이양우 김희경	최창근 이원길	최봉호 윤태근	이승근 허종욱	오치용 이승근	조경길 윤용규	장정일 김창근	허종욱 박동실	오치용 유국암	28	

2. 출판국
① 임명
월간충현 편집부 장 수
월간충현 편집부 류희선
② 퇴임
월간충현 이형수
월간충현 정정희

- *임시교사 특별훈련이 6월7일 부터 7월1일까지 청년부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 *유치부는 오는 27일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어린이전도집회도 26일 가질 예정이다.
- *장년세신자 1부는 20일 새신자부실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하며 25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가질 예정.

*수도도회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회 성경퀴즈대회에 본교회에서는 유·초·중등부 24개 팀이 출전하게 된다. 6월19일 후암재일교회당에서 열리는 동 퀴즈대회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

*수도주교연합회는 오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본교회당에서 교사강습회를 개최하는데 예상참석인원은 약3천명이라 한다.

5/2 현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
광주 초월 14번을 싣쳐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 낮	I 부	212	379	591	총 세대 수	4,355						
		II 부	448	1,091	1,539								
		III 부	423	809	1,232								
		IV 부	192	493	685								
		V 부	180	514	694								
배	주 일 저 녁	242	545	787	선 급	교인	남	4,099					
	삼 일 저 녁	180	514	694			여	5,969					
주 일	학	어린이 새 신자 부	13	18	31	교 별	총 수	계	10,068				
		영 아 부	203	157	360			새 세 대	남	2,271			
		유 치 부	143	135	278				여	3,796			
		유 년 부	218	222	440			입 교	계	6,067			
		초 등 부	223	214	437				유 아 새 세 대	남	632		
		중 등 부	183	187	370			여		521			
		고 등 부	114	151	265			계		1,153			
		대 학 부	78	72	150			남		334			
		교	학	청 년 부	60			110	170	선 천 황	학 습 새 세 대	여	437
				장 새 부 I	40			79	119			남	771
장 새 부 II	27			72	99	여	862						
장 년 부	21			251	272	계	1,215						
노 년 부	39			120	159	남	2,077						
산 업 교 육 부	13			91	104	여							
선 교 부	28			70	98	계							
		새 가 정 부	21	32	53	원 입 교인							
		합 계	3,276	6,151	9,427								

6 월의 행사

◇ 교 회

11일/전체철야기도회
21-25일/충현기도원 자체
부흥회
29일/정기당회

◇ 전도위원회

13일/남전도회 월례회
16일/여전도회 임원 및 철
야기도회
20일/여전①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
위원회
27일/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7일-7월1일/임시교사 특별
훈련(월, 화, 목주3회)
19일/성경퀴즈대회 (후암
제일교회) 유초 중등
부 24개팀 출전

27일/교육위원회 정기월례
회

◇ 심방위원회

6일/제직회, 권사회 임원회
9일/권사철야기도회
13일/권사월례회
20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7일/구역권찰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20일/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20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
회

◇ 재정위원회

20일/재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20일/월간충현 편집회의
/월간충현 6월호 발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 원 장/조 현 명

편집위원/

김 하 진	조 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수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6 월호

월간 충 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 6 호

통권 제 100호

1972년 4 월 30일 창간

1982년 6 월 15일 인쇄

1982년 6 월 20일 발행

발 행 인/김 창 인
편 집 인/조 현 명
편집부장/장 수
발 행 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 02-260-340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260-3407 · 3408

편집후기

◇ 무더운 초여름 어느날 말없이 떠났던,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한 생이 우여곡절 끝에 어느 또다른 초여름날 마침내 고향-충현동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 믿고 감사드린다.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와 같은 겸허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여 보디나온 충현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한다. 믿음의 선배되시는 성도 및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기도의 성원 빌어 마지 않는다.

◇ 월간 충현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동안 충현지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로 도우며 양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언제까지나 같이하시기를 중심으로 빈다.

사진으로 보는 고 홍종만목사의 이모저모



◇ 홍콩한인교회에서 예배중 설교하는 고 홍종만목사



◇ 교회단기수련회 (장로)에서 강의하는 고 홍종만목사



◇ 홍콩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 홍콩한인교회에 의하여 중국 상해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습



◇ 홍콩한인교회 수세자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고 홍종만목사



◇ 고 홍종만목사 가족이 저녁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 하나님, 지나간 무한 시대 우릴
도우신 이여
다가올 무한 햇수 우리의 희망이실 이여
오늘 이 순간의 현실 굽어 살피시어
당신을 갈구하는 우리 맘 헤아리소서—
어디나 어두운 위험 도사려
안식을 모르는 이 시대
보다 높이, 보다 미더운 터전으로
우릴 이끄실 당신의 손 갈구하오니
오직 당신의 보살핌 만이
튼튼하고 온전한 안식처임을
더욱 잘 깨달아 알고자
당신의 도우심과 지혜의 말씀 갈구
하오니—
누구나 자유 위한 싸움 싸울 때
우리의 길과 뜻대 밝히게 하소서
두려운 위험이 엄습하는 시간엔
당신께서 가까이 계심 느끼게 하소서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